

30일 Market Index			
↓ 코스피	5593.56	↓ 코스닥	644.78
	(-69.68)		(-17.90)
↑ 금리 (국고채 3년)	3.831	↓ 환율 (원·달러)	1438.80
	(+0.031)		(-7.90)

삼성전 영업이익 89.5조 반도체서 89.2조 벌어

2분기 메모리사업 호조 ‘최대실적’ 매출 28%, 영업이익 56% 증가 반면 DX 영업손실 8000억 기록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웠다. 메모리 사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전자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강세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171조5000억원, 영업이익 8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은 전분기보다 28%, 영업이익은 56% 증가하며

모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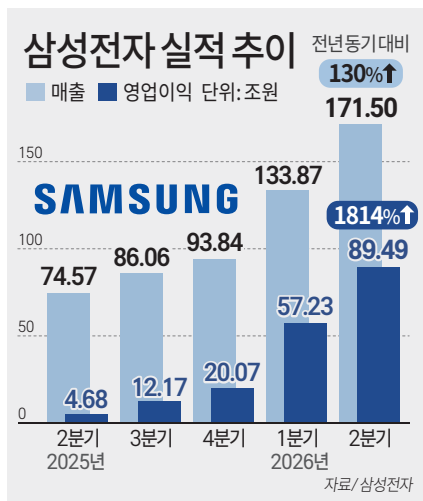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주당 순이익은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1만849원으로 전분기 대비 52% 증가했다. 특히 실적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이끌었다. DS부문은 매출 127조5000억원, 영업이익 8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메모리 사업은 에이전틱 AI 확산에 따른 서버용 제품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HB M4 공급을 확대하고 업계 최초로 HBM4 E 샘플을 출하하는 등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강화했다.

시스템LSI는 전반적인 수요 둔화에도 모바일 SoC와 센서 판매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파운드리 사업은 HBM 베이스 다이와 미주 고객 중심의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다. 반면 디바이스 경험(DX)부문은 매출 48조원, 영업손실 8000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경험(MX)사업은 갤럭시 S26 시리즈와 A시리즈 판매 호조로 매출은 늘었지만 부품 원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연금개혁·가상자산 규제 해소 기대감

22대 국회 하반기 본격 가동 투자자 보호법 입법에도 ‘관심’

22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하면서 금융부문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연금개혁, 가상자산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금융 현안이 쌓여 있어서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 보호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22대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 ‘하후상박 기초연금’ 논의 본격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으로는 ‘기초연금 개혁’이 꼽힌다.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고령자 과반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관련 지출은 국내

총생산(GDP)의 1%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과도하게 책정된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월 35만원씩 일괄 지급되던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다.

정무위 소속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혁이 포함된 ‘맞춤형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하위 70%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개편하고,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중위소득의 40%까지 차등하는 방안이다. 단, 기존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던 고령자에게는 소급하지 않는다.

◆ ‘가상자산 선진화’ 속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완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주요한 현안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해 향후 규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법안이다. **〈6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경찰 협조 약속에도 진입 못한 체육단체…56일째 막힌 핸드볼경기장
▲안철수 “김용범·이덕원·이찬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경정해야”

/사진 뉴스스

▲감사원 “HUG, 보증료 28억원 덜 받아…PF 보증심사도 부실”
▲물놀이 금지구역 무단출입시 과태료…정부, 안전관리 강화

▲‘보완수사권 폐지’ 무력감 휩싸인 검찰…“지휘부 불신” 목소리도
▲해외서 10조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총책 구속기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7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에 위치한 현대차 브라질공장을 방문해 차량 품평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브라질 찾은 정의선 “현지 R&D 강화”

현대차그룹 중남미시장 전략 점검 중 대응 친환경차·SUV 확대 추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브라질 현지 생산 거점을 직접 찾아 중남미 시장 공략 전략을 점검했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브라질 맞춤형 친환경차와 SUV를 확대하고, 수소 사업까지 육성해 중남미 핵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3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에 위치한 현대차 브라질공장을 방문해 생산·판매 전략과 중장기 사업 방향을 점검했다. 현대차는 연간 20만대 생산능력의 브라질공장에서 현지 전략차종인 HB20·크레타·i20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남미 권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에는 중국 업체들이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BYD는 현지 생산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 브랜드 판매 4위에 올랐고,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 투자액도 전년 대비 45% 증가한 61억달러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응해 브라질 특화 친환경차와 SUV 라인업을 확대하는 한편, 그룹 차원의 수소 모빌리티 및 에너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형 전기차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FFV 기반 하이브리드(FFV-HEV)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정 회장은 중남미 권역 R&D 센터를 찾아 “지속가능한 중장기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R&D 기능을 강화하고 파워트레인 현지화를 더욱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생산공장에서 지난 6월 생산을 시작한 i20와 크레타의 생산 품질을 점검하고, 누적 생산 250만대를 달성한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회장은 “브라질은 현대차 글로벌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새로운 경쟁 국면을 극복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전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브라질에서 9만 6723대를 판매해 2019년 이후 상반기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시장점유율은 7.1%로 브랜드 5위를 차지했으며, 크레타는 브라질 SUV 딜러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차현정 기자

김동관·김동원·김동선 ‘한화 3형제’ 나란히 승진

5개 계열사 대표이사 등 인사 단행

한화그룹이 김동관·김동원·김동선 3형제를 나란히 승진시키며 3세 경영체제를 본격화했다. 아울러 방산, 우주항공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를 교체하며 미래 성장동력 강화에 나섰다.

한화그룹은 김동관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부회장, 김동선 한화비전 부사장은 사장으로 각각 승진하는 인사를 다음 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화그룹은 “김동관 수석부회장은 방산·해양·우주항공·에너지 사업을 이끌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주도하고 전략적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동원 부회장은 금융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왼쪽부터),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 /한화그룹

이끌며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했고 김동선 사장은 유통·레저·식음료 사업 확대와 반도체 장비 시장 진출 등 첨단산업 분야에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계기로 각 분야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경영안정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5개 계열사의 신임 대표이사 인사도 단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부문 대표이사에는 이부한 부사장이 내정됐다. 유럽 법인장과 PGM사업부장을 거친 지상무기체계 연구개발(R&D)·해외사업 전문가로 해외 방산 거점 구축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이끌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양기원 대표이사는 ㈜한화글로벌부문 대표, 한화임팩트 사업부문 대표를 지낸 신규 사업모델 전문가다. 우주·방산 분야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

한화임팩트 사업부문 대표이사에는 강정훈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공장장이 내정됐다. 한화자산운용 임동준 대표이사는 미주법인장과 전략사업업

닛장을 거쳤으며 글로벌 사업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2분기 역대최대 실적... 로봇·AIDC 등 신사업 탄력

매출 23.8조, 영업이익 1조5791억
가전·전장 등 안정적 수익 창출
HVAC 분야 글로벌 성과 가시화

LG전자가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개선, 구독사업 성장 등이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로봇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냉각 솔루션 등 신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3조8265억원, 영업이익 1조5791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9%, 영업이익은 147% 증가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LG전자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생활가전 사업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뉴시스

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고, 스포츠 이벤트 효과와 전장(VS) 사업의 성장세가 더해지며 전사 매출 확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 확대, 원가 경쟁력 개선 노력 등이 반영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한 관세 환급액도 일회성 수익으로 반영됐다.

기업 간 거래(B2B)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2분기 B2B 매출은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으며, LG 이노텍을 제외한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사업 매출도 6600억원으로 전년보다 5% 늘었으며 해외 시장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사업부별로는 생활가전 사업을 맡고 있는 HS사업본부가 매출 7조757억원, 영업이익 68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처음으로 매출 7조원을 돌파했으며, 프리미엄과 볼륨존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과 공급망 최적화, 구독사업 확대 등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TV사업을 하는 MS사업본부는 매출 5조1146억원, 영업이익 2194억원을 기록했다. OLED와 QNED 등 프리미엄 TV 판매 확대와 webOS 플랫폼 사업의 성장세가 실적에 기여했다.

전장 사업을 맡고 있는 VS 사업본부는 매출 3조259억원, 영업이익 1912억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기 매출은 2개

분기 연속 3조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률도 6%를 웃돌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이어갔다.

냉난방공조 사업을 담당하는 ES 사업 본부는 매출 2조7261억원, 영업이익 2358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에어컨 판매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8.6%를 기록했다.

LG전자는 하반기에도 생활가전과 전장 등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봇과 AIDC 냉각 솔루션 등 신사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냉난방공조(HVAC) 사업에서는 AIDC 냉각 솔루션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독자 개발한 냉각수분배장치(CDU)가 글로벌 AIDC 공급망 진입을 앞두는 등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SK하이닉스, 채용체계 전면 개편

최태원 회장 ‘AI시대 인재상’ 전형 반영
자소서 폐지... 반나절 심층면접 도입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생각 근육(근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해 채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반나절 심층면접’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지원자의 AI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바꾼다.

SK하이닉스는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신입사원 수시채용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직무는 설계, 소자, R&D공정, 양산기술 등 주요 직무 전반이며, 근무지는 이천, 청주, 분당, 서울 등이다.

이번 채용 개편의 핵심은 반나절 심층면접 도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온 AI 시대 인재상을 채용 전형에 반영해 기존의 짧은 면접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지원자의 문제 해결 과정과 AI 활용 능력, 직무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SK하이닉스는 20~30분 안팎으로 진행되던 기존 면접에서 벗어나 반나절 동안

심도 있는 과제 수행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지원자의 직무 전문성은 물론, AI 응용 능력, 인문학적 소양, 논리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서류 단계 역시 이러한 역량 중심 평가 기준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SK하이닉스는 기존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없애고, 지원자가 보유한 ‘AI 활용 역량’과 ‘반도체 직무 전문성’을 기술하는 신규 서식을 도입한다. 단순 스펙이나 형식적인 소개 대신, AI를 업무에 유연하게 적용하고 현업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서류 단계부터 정교하게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채용 설명회 방식 역시 기존 대학 캠퍼스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거점형 리쿠르팅으로 전환한다. 서울, 청주,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채용설명회를 열어 특정 대학교 재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차세대 인재들에게도 산업 비전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차현정 기자



metro

공정위, 바이오연료 7개사 담합행위 제재

9.7조 입찰 영향... 과징금 2조대 전망

친환경 대체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시장에서 무려 11년 동안 9조 7000억 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한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이하 피심인들)가 연루된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관의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담합 가담사는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이,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판매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 12월 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약 1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입찰 담합 및 물량 배분 합의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 7600억 원, 바이오중유 1조 9500억 원 등 총 9조 7000여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및 물량담합 위반으로 보고, 향후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규모는 2조원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2026
북항 오션 SUP FESTA
07.31 FRI - 08.09 SUN
북항 친수공원 및 랜드마크 부지 일원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참여기관 | 해양수산부 | Nice junggu | BPA | 부산항만공사 | 부산영상협회 | 영화의전당

삼성, 3분기 HBM4 매출 3배 확대… 美 테일러 팹2 연말 착공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

매출·영업이익 역대 최대 기록
하반기 HBM4 매출 비중 60% 상회
데이터센터 5곳과 장기계약 완료
추가 대형 고객 5곳 협상 막바지
2나노 수주 과제 전년비 2배 전망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고 분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하반기에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앞세워 AI 메모리 시장 공세를 한층 강화한다. 장기공급계약(LTA) 확대와 생산능력 확충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30일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3분기 HBM4 매출은 전 분기 대비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 기준으로는 HBM4 매출이 당사 HBM 전체 매출의 60%를 넘어서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반기 전체



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뉴시스

D램 시장 점유율과 맞먹는 수준의 HBM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균형 잡힌 D램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에 매출 171조5000억원, 영업이익 89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

성했다. 회사는 하반기에도 AI 서버 중심의 수요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사업은 HBM4와 HBM4E를 비롯해 DDR5, SOCAMM2, 엔터프라이즈 SSD(eSSD) 판매를 확대하고, AI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이다.

파운드리 2세대 2나노 모바일 공정 양산과 AI-HPC 고객 확대에 집중하고, 시스템LSI는 차세대 플래그십 모바일 SoC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디스플레이는 8.6세대 IT OLED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MX사업은 AI 경험을 강화한 갤럭시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시설투자도 AI 중심으로 이어간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시설투자에 총 16조8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이 가운데 반도체 부문에만 15조4000억원을 투자했다. 메모리는 첨단 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대를, 파운드리는 선단 공정 경쟁력 강화와 생산 기반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 HBM 사업 경쟁력에 대해서

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샘플링한 HBM4E 기술력과 2027년 HBM 공급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들과 계획대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품 경쟁력은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급 부족이 중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대비 더욱 심화되며 28년에도 이러한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AI 토론투 급증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AI 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대형 고객들로부터 다년 공급 계약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공급계약(LTA)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계약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실제 주요 5대 글로벌 테

이터센터 고객들과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으며, AI 수요와 연관된 추가 5개 대형 고객들과도 협상 완료 단계에 있다”며 “당사는 전체 캐파의 60~70% 수준에서 장기 계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5년을 기본으로 하는 다년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했다.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선단 공정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 2나노 수주 과제 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테일러 팹2 역시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 말 공사 착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4나노에 대한 고객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팹 확보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하만 등 선전… 가전 수익성 뒷걸음

>> 1면 ‘삼전 영업이익…’서 계속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 수요와 신규 제품 출시 효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됐고, 생활가전(DA)은 에어컨 성수기 효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비용 부담이 확대되며 이익은 감소했다.

하만은 전장 사업과 개인용 오디오 판매 확대에 힘입어 매출 4조6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하이엔드 모바일 패널과 게이밍 모니터용 패널 판매 증가에 힘입어 매출 7조5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는 HBM4·HBM4E, DDR5, SOCAMM2, eSSD 판매를 확대하고, 파운드리는 2나노 2세대 모바일 공정 양산과 AI·고성능컴퓨팅(HPC) 수요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제조업 심리 4년1개월래 최고 中企·비제조업은 기준선 아래

한은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반도체·방산·조선 신규수주 확대
수출기업 107.5 직전 고점 회복
내수기업 3년1개월 만에 100선

반도체·방산·조선 등 전방산업의 수주가 늘면서 7월 제조업 기업심리가 4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수출기업 심리는 107.5까지 상승하고 내수기업도 기준선 100을 회복했지만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은 여전히 장기평균을 밑돌아 회복의 온도 차가 이어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8.5로 전월보다 0.8포인트(p) 상승했다.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장기평균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다.

CBSI는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합성한 지표다. 2003~2025년 장기평균을 100으로, 이를 웃돌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전체 지수를 끌어 올린 것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 CBSI는 103.2로 전월보다 2.0p 상승했다. 2022년 6월 107.1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5월

부터 석 달 연속 기준선 100을 웃돌았다.

신규수주가 제조업 CBSI 상승에 0.8p 기여했고 업황은 0.7p, 생산은 0.6p, 자금사정은 0.4p를 각각 보탬다. 반도체와 방산, 조선 등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가 관련 제조업체의 수주와 생산 개선으로 이어졌다.

수출기업 CBSI는 107.5로 1.1p 올라 2022년 6월의 직전 고점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수기업도 2.0p 상승한 100.0으로 2023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대기업은 105.3으로 0.8p, 중소기업은 97.6으로 1.9p 올랐다. 중소기업 심리는 개선됐지만 기준선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체가 꼽은 가장 큰 경영 애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응답 비중이 21.8%였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20.6%, 내수 부진이 16.4%로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 CBSI는 제조업과 달리 95.2로 0.2p 하락했다. 자금사정 악화가 지수를 0.5p 끌어내렸다. 비제조업체의 경영 애로는 내수 부진이 18.4%로 가장 많이 꼽혔다.

8월 전산업 CBSI 전망은 96.5로 전월 조사보다 1.3p 상승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일 잘하는 증권사가 만든 N2, IMA1

만기보유 시 원금은 지키고, 수익은 기대되는 IMA도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 운용 능력을 지닌
NH투자증권이 잘하는 일
그냥 IMA가 아니라 IMA1을 만나세요

트든한 1위
신용등급 1위 AA+
*26.3.18 한국기업평가, 국내 증권사 기준

능력있는 1위
주식법정 및 인수금융 1위
*25년 11월 기준, 10대 증권사 기준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1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4년 연속 1위
*25년 KVIC, 증권사 부문

이용고객 1천만 명
*26.3.20 국민투표연속기간
이용고객 1,043만 명(총화·당시 고객 데이터)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IMA)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종합투자계약(IMA)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IMA)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본 상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종합금융투자)에서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 파생상품으로 설정시 중도에 해지 불가. • 이 종합투자계약(IMA)은 당사(AA+, 2026.03.18, 한국기업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A 운용자(신용)을 당사 외의 고위자산 등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A+/A-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이 종합투자계약(IMA)은 운용 및 관리 등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발생하며, 기타 운용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1370호(2026-03-27 ~ 2027-03-26)

코스피·레버리지 변동성 ‘빨간불’… 금감원장, 휴가도 연기

휴가 독려 앞장섰던 이찬진 원장
시장 불안 확대에 비상체제 돌입

레버리지 ETF 총량 20% 내로 제한
현금 3000만원 기본예탁금 요구도
자금흐름·운영사 거래행태 등 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주 예정했던 여름휴가를 연기했다. 코스피 6000선이 깨진 데다 시장 변동성까지 커졌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까지 겹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사용할 예정이던 여름휴가 일정을 미뤘다. 새로운 휴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당초 임직원들의 여름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먼저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다. 휴가 기간에도 주요 현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을 보고받는다라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했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청와대의 시선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모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지난 28일(현지 시각) 상파울루 프레젠테이션에서 “레버리

지 ETF로 변동성이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다 그것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꼭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적 요인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점검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투자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총량 규제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에게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조치가 시행되면 거래 계좌가 약 10만 개에서 1만 개 수준으로 줄고, 거래량도 약 60% 감소할 것으로 업계가 예상한다고 했다. 현행 두 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변

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문투자자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거나 투자자별 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관련 상품의 자금 흐름과 증권사·자산운용사의 거래 행태, 리밸런싱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장마감 무렵 기초자산 매매를 집중시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변동성을 키웠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과 관련해 비상 대응체제 모드가 이어지고 있다”며 “원장이 언제 휴가를 떠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일정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여름휴가를 아예 미뤘다. 당초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27~28일 이틀간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금융 정책과 삼성전·레버리지 ETF 추가 조치 준비 등 급박한 현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정을 취소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韓日 유통가, 반짝 팝업 넘어 현지 일상으로 뿌리내린다

韓, 정규 플래그십·지역거점 확보 박차
日, 대구백화점에 돈키호테 임차 검토

단기 팝업스토어나 일회성 수출에 기댄 한·일 유통가의 해외 진출 공식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 시장에 직접 정규 매장을 열고 온·오프라인 판매망과 물류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중장기 현지화 전략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인구 감소와 내수 성장 한계라는 공통의 벽을 넘기 위해 매장과 플랫폼, 그리고 운영 방식 전체를 현지에 이식하는 밀착형 안착 전략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 K유통, 日서 ‘상시 거점’으로 승부

최근 한국 유통·패션기업들의 일본 공략은 과거의 ‘테스트 베드’ 차원을 넘어섰다. 현지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정규 플래그십과 지역 거점 확보가 핵심이다.

현대백화점이 도쿄 오모테산도에 문을 연 ‘더현대(THE HYUNDAI)’ 글로벌 첫 해외 플래그십 정규 매장은 이러한 트렌드를 이끄는 선두주자다. 개점 초기부터 목표치를 30% 이상 웃도는 실적을 거두며 도쿄 플라자 오모카도의 20·30대 방문객을 전년 대비 5배 이상 끌어올렸다. 단순히 브랜드를 모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통관부터 물류, 현지 마케팅까지 유통사가 전 과정을 뒷받침해 국내 중소브랜드의 운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한 구조가 적중했다.

패션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무신사가 유통하는 여성복 브랜드 ‘마쎅킴’은 오는 8월 28일 일본 서부 최대 소비시장인 오사카의 핵심 상권 ‘루쿠아 오사카’에 일본 4호점을 연다. 도쿄와 나고야에 이어 서일본까지 아우르는 ‘전국 단위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형지I&C 역시 여성복 ‘캐리스노트’를 앞세워 오는 11월 일본

최대 홈쇼핑 플랫폼 ‘숍채널’ 진출을 확정짓는 등 현지 맞춤형 생산과 온라인 판매망 확대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 日 브랜드, 한국인 일상 파고들기

일본 기업들도 일시적 수입·판매에 머물지 않고 한국 소비자의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려는 모습이다.

일본 대형 할인점 돈키호테 운영사 PPIH는 대구백화점 본점 인수를 추진 중인 세경인베스트와 손잡고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1~4층 임차를 검토 중이다. 단일 점포 진출을 넘어 대백마트 140여 곳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저울질하며, 기존 지역 유통망을 발판 삼아 본격적인 국내 영토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식품업계의 장기 투자도 눈에 띈다. 일본 오하요유업은 프리미엄 디저트 ‘오하요 브뤼레 밀크’를 국내에 정식 출시하고 세븐일레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선보인 ‘저지 우유푸딩’으로 국내 디저트 열풍을 주도했던 오하요유업은 향후 10년에 걸쳐 한국을 핵심 거점으로 삼고 프리미엄 브랜드 인지도를 다지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가동했다. 한국 소비자의 세밀한 피드백을 수집해 향후 상품 기획과 마케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한·일 유통 교류가 단순한 무역 거래의 확대를 넘어 서로의 안방 시장에 현지화된 거점을 세우는 내재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리적 근접성과 유사한 소비 문화를 바탕으로, 올해는 일회성 유행을 넘어선 상호 로컬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내수 한계에 부딪힌 양국 기업들이 철저한 현지 맞춤형 상품 기획과 운영 방식으로 상대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1965

SINCE

NH농협생명

60년을 넘어 한결같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밝혀 온 NH농협생명.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인생을 비추겠습니다.

NH농협생명이
든든한 빛이 되겠습니다

대망같이



하나의 별은
혼자 반짝이지만
별들이 모이면
방향이 된다

합은 길이 된다



AI 시대 전기화·에너지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반쪽 청문회’ 된 축협 감사… 핵심 증인 빠지고 질타만 남아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홍명보 전 감독 사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등 불출석
운영 개선 논의보다 여야 공방만

30일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축협) 대상 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망신주기식 질문과 핵심 증인의 불출석, 청문회 취지에 어긋난 발언이 나오는 등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축협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몽규 전 축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출석했다. 다만 핵심 증인으로 분류됐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와 박항서 전 축협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일부 참고인의 경우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사유로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불출석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지만 공론화장에 나와달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대한축구협회(축협)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축협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 동안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홍 전 감독도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홍 전 감독은 ‘고액 연봉’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하지만

38억원 정도는 아니다.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정 전 회장은 임오경 민주당 의원의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다면 이번 청문회가 열렸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청문회는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했을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청문회 도중 여야위원 간 고성이가 오가기도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이번 월드컵 결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이 없으면서 “우리가 (32강) 탈락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는데 이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많은 국민이 그런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전직 감독이 무능해서 그렇다’, ‘내 편 인사해서 그렇다’ (했는데) 이런 말씀이 그 상황에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의 인사 내용을 보면 내 편 인사가 많다. 그러면 결국 결과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 문화계 인사에 관해서도 말이 많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자리는 대한축구협회의 30년 묵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 첫판부터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맞받아쳤다.

또 ‘손흥민 미출전은 보복성이나’는 취지에 어긋난 질문도 나왔다. 최민희 의원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물 보충 휴식) 도중 이강인이 김진규 코치를 향해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김 코치에게 “손흥민, 이재성 등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에) 출전하지 못한 것이 홍명보의 보복 차원인가”라고 물었다.

김 코치가 “그런 적 없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여기 국회다. 위증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김 코치를 몰아세웠다.

최 의원은 “왜 이렇게 졸전을 벌였는가. 축구 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축구 팬들이 틀린 것이냐. 축구 팬들이 보고 있다”며 “왜 졌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코치가 “왜 이겼는지 졌는지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하며 말을 이어 나가려 하자 최 의원은 “앉아라. 저런 태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이 모양이다”라며 말을 끊었다.

이 가운데 홍 전 감독은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 “두 선수가 선발로 나가지 않은 것은 전술적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 칠레와 FTA 고도화 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신산업 협력 확대 등 목표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칠레에 공식 방문을 명목으로 머물며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한-칠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에페(EFE)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오늘날 경제는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AI), 청정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탄소 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칠레는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다. 이에 이 대통령과 카스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2004년 체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칠레 산티아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발효된 한-칠레 FTA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한-칠레 FTA가 2004년부터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협정이 그 이후 발생한 극적인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칠레 양국이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

개하고, 협정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 현대화가 단순히 무역 규범을 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1949년 한국을 최초로 인정한 남미 국가인 칠레와의 협정 현대화를 통해 노동 기준 및 성평등 등의 분야를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칠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광물 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목표는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칠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및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안정적인 수요와 첨단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 특검 출범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여야가 30일 선관위 특검법(제9회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여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쟁점 사안을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외에도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여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다음달 10일 3차 청문화와 18일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현장검증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 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는 오후 3시께 열린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표결에 붙여 재석 228인, 찬성 226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또한 국조특위에서 회부된 국조특위 활동 연장의 건도 재석 225인, 찬성 225표로 처리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2+2’ 회동을 갖고 선관위 특검법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수사인력을 특별검사보 5

명, 특별 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꾸리기로 합의했다. 수사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을 준비기간으로 하고 90일의 수사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의혹 사건 ▲투표과정에서 부실 관리의혹이 발생한 이후 개표 중단·보조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사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논의 본격화

» 1면 ‘연금개혁·가상자산’서 계속

지난해 법안이 최초로 논의됐을 당시에는 2025년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정부 안 마련도 늦어지면서 입법이 늦춰졌다.

현재 여당이 최초 발의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0개 이상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본격 논의된 법안은 아직 없다.

정치권에서는 기본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고, 입법 필요성에도 동의해준다. 지난해 입법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 된 규제 권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견해차도 좁혀졌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이후 후속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매출이 급감했는데, 법인 및 외국인 거래 허용이나 파생상품 판매 허용 등 규제 완화 논의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이후로 예정돼 있어서다.

◆ ‘뜨거운 감자’ 된 ‘레버리지 ETF’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한 파생상품 관련 논의도 주요한 화두다. 최근 증권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손실이 커진 투자자가 급증했는데,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정무위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코스피 5000이 정부 정책 목표였고, 이를 달성했으면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했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지적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6월부터 ETF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대책은 이달 중순에야 발표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늦었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기존 1000만원 수준이었던) ETF 기본 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레버리지 목표 배율 조정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 같은데 (당국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시작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지연 전략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며 법안 처리 수순을 밟았다.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중요범죄 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맞게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정치권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논란이 일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더 크게 자라날 아이들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가 아이들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눈높이 금융교육 지원

- 어린이 경제 뮤지컬 공연 개최
- 어린이 금융교실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 운영

보육환경 개선 및 돌봄 공백 최소화

- 100호 어린이집 건립
-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운영

자연을 주제로 34년째 이어온 환경 미술대회

-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GTX 개통 온도차… 동탄 22억 신고가, 운정 6억에 미분양

동탄 매매가 전월 대비 6.25%↑
삼성전자·반도체클러스터 수혜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84㎡
9.7억 집값 5년만에 6.9억 손바뀜
교통망 외 일자리·인프라 등 영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주택시장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 동탄 등 남부 핵심 지역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달아오른 반면, 파주·양주·의정부 등 북부에는 미분양이 쌓이며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 동탄 22억원·운정 6억원대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7㎡는 지난 6월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KB부동산 조사에서도 7월 화성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6.2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GTX-A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고소득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동탄역 주변에는 백화점과 상업·업무 시설, 학교 등 생활 인프라도 이미 자리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일대. 동탄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잡고 있다.

반면 같은 GTX-A가 개통된 경기 북부 주택시장은 회복세가 더디다. 운정중앙역과 가장 가까운 파주시 목동동 한울마을1단지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7월 9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10억원에 근접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같은 면적 20층 매물이 6억9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 단지의 전용 84㎡ 거래가격은 1층을 제외하고 7억원대에 형성돼 왔으나 고층에서도 6억원대 거래가 나온 것이다. GTX-A 개통 이후에도 매매가는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북부의 시장 침체는 미분양통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준공 후 미분양은 1593가구로 경기

도 전체 준공 후 미분양 2714가구의 58.7%를 차지했다. 의정부가 539가구로 가장 많았고 양주 374가구, 남양주 328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 일자리·생활권이 갈랐다

같은 GTX 수혜지역이지만 시장 반응이 다른 것은 교통망 외에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주택 상품성, 공급 규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동탄은 GTX 개통 전부터 수도권 남부의 산업·상업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GTX-A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냈다기보다 반도체 일자리와 기존 교통망, 완성된 생활권이 가진 효과를 증폭시켰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경기북부는 서울 출퇴근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지역 내부에서 안정적인 주택 수요를 만들어낼 산업 기반이 상대적



GTX-A 운정중앙역 일대.

/성채리 수습기자

으로 부족하다.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의 GTX-A 이용객이 당초 예상에 근접할 정도지만, 교통수요가 곧바로 주택 매수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은 셈이다.

GTX 사업 진행 단계에도 차이가 있다. 동탄과 운정은 GTX-A가 운행 중이지만 두 구간은 아직 삼성역을 사이에 두고 분리돼 있다. 지난 5월 삼성역 구간의 부실 시공이 밝혀지며 시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경기북부, 정책 '사각지대'

경기북부 미분양 문제는 정부의 공급정책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는 주택 수요가 취약해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단순한 구분 대신 미분양 지속 기간과 일자리 접근성, 공급 과잉 정도 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가 수도권 핵심지역과 주택 수요에서 큰 격차를 보이면서도 지방 미분양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서다.

앞으로 입주가 시작될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왕숙 지구는 GTX-B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계획돼 있지만 주택 입주가 철도 개통과 기업 유치보다 앞설 가능성이 있다. 교통망과 일자리 기반이 갖춰지기 전에 주택 공급부터 늘릴 경우 경기북부의 미분양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물량을 단순히 확대하기보다 철도 개통과 산업시설 가동, 생활 인프라 조성 시점을 입주 계획과 촘촘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GTX가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실제 주택 수요로 연결할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 남북 간 부동산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코스피 쇼크에도 금리인상 기조… ‘물가 잡기’ 집중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근원물가 상승 잡는게 합리적
반도체 가격에 따른 물가 불거”

코스피가 이틀 새 16% 넘게 급락했지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은의 시선은 주가지수 자체보다 자산가격 하락이 소비와 성장세를 약화시켜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낮출지에 쏠릴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8일 10.84%, 29일 5.98% 내려 이틀간 16.2% 추락했다. 30일에도 장중 고점 5976.82와 저점 5547.41의 격차가 429.41포인트(p)에 달해 투자심리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신 총재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16일에는 통화정책이 주가 수준



을 결정한다는 데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정 기업의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이 물가와 경기에 미칠 영향을 보겠다고 했다.

코스피 급락만으로 인상 방침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즉각적인 한미 금리차 확대 역시 피했지만 한은의 인상 기조를 꺾을 만한 완화 신호도 아니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 정책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다만 12명 중 3명이 0.25%p 인상을 주장했고, 케빈 워시 의장도 물가 목표는 2%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지표도 엇갈린다. 7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8.5로 전월보다 0.8p 올랐고 제조업은 103.2로 2.0p 상승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95.2로 0.2p 내렸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8로 0.2p 올랐지만 조사가 증시 급락 전인 13~21일 이

뤄져 이번 충격은 반영하지 못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주식 자본이득 1만 원당 소비는 평균 130원 늘어난다. 하지만 이 1.3%를 최근 주가 하락분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소비 감소를 추산할 수는 없다. 한은도 손실 회피 성향과 유동성 제약 때문에 하락장에서의 ‘역자산효과’가 상승장의 자산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분포도 중요하다. 지난해 주식 자본이득은 429조원으로 2011~2024년 평균의 22배였고, 2019년 이후 청년층의 주식시장 참여율은 5.5%p, 중·저소득층은 2.2%p 높아졌다.

고점에 유입된 청년·중저소득층과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손실이 몰렸다면 소비 충격은 평균치보다 커질 수 있다.

레버리지는 충격을 증폭시킬 변수다. 개인의 레버리지 주식투자 규모는 5월 말 60조원을 넘었고, 반도체 업종 신용잔고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배 이상 불었다.

한은은 증권사 자본과 담보 관리 등을

고려하면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반대매매와 강제매도가 변동성을 키우고 원리금 부담이 가계 소비를 누를 위험은 별개다. 금융위원회도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인다.

첫 분수령은 다음 달 4일 발표될 7월 소비자물가다. 이어 25일 소비자심리, 26일 기업심리, 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차례로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물가뿐 아니라 반대매매 규모와 신용잔고, 카드 사용액과 소매판매 등에서 증시 충격이 실물로 번지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소비가 버티면 끈질긴 근원물가를 이유로 한 추가 인상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레버리지 축소가 소비 위축으로 빠르게 이어지면 인상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시기와 속도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김주형 기자 gh471@



서울 ‘기후동행카드’ ‘모두의카드’로 전환

만 35~39세 청년 포함 환급 확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모두의카드’ 체계로 바뀐다. 만 35~39세 서울시민은 청년 유형에 포함돼 일반 이용자보다 높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오는 9월 1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후동행패스는 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더한 서비스다. 서울시가 청년 유형의 연령 기준을 연장해 앞으로 만 19~39세 서울시민은 청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액의 일정 비율이 환급되는 정률형의 경우 일반 이용자는 이용액의 20%, 청년은 30%를 돌려받는다. 이용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정액형의 기준은 일반 이용자가 6만2000원, 청년이 5만5000원이다.

서울시는 향후 제대군인 할인 대상을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파릉이 할인도 연계할 계획이다.

모두의카드는 이용자의 교통비 지출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월 이용액이 6만2000원보다 적더라도 정률형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채리 수습기자

카드 사용액 337조, 전년비 7.6% 증가

여신협, 2분기 증가율 3년래 최대치
카드 승인건수 79.6억건 6% 늘어

2분기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3년 만에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내총소득 증가로 소비 여건이 개선된 데다 정부의 물가·민생 안정 정책이 소비 부담을 일부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여신금융협회가 내놓은 ‘2026년 2분기 카드 승인 실적 분석’에 따르면 2분

기 카드 승인 금액은 33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카드 승인 건수는 같은 기간 79억6000만건으로 6% 늘었다.

지난 2023년 1분기(1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앞서 1분기 카드 승인 금액 증가율은 7.2%로 이미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분기 증가율이 이를 다시 웃돌면서 증가세가 확대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수

요 확대와 교역조건 개선에 따라 국내총소득(GDI)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소비 여건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물가·민생 안정 정책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소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면서 전체 카드 승인 실적은 과거 대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분기 개인카드 승인 금액은 273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4% 증가했다. 승인 건수 역시 6.3% 오른 75억5000만건을 기록하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63조4000억원으로

8.7% 확대됐다. 승인 건수는 4억1000만건으로 1.4% 올랐다.

한편, 소비 밀집 업종에서는 운수업(-8.3%)을 제외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6.8%), 도매 및 소매업(5.9%) 등 전반 업종에서 카드 사용액이 증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실적 증가, 백화점 매출 성장 등으로 도매 및 소매업의 카드 사용액이 증가했다”며 “다만, 중동전쟁 및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항공권, 여행 상품 결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운수업 카드 승인 실적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주요기업 2분기 실적

포스코홀딩스, 철강·이차전지 양날개… 순이익 808% ↑

매출 19.2조, 영업이익 8190억
리튬사업 흑자… 인프라 부문 호조
“트리플 코어 전략 강화해 나갈 것”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이차전지소재 부문의 실적 회복에 힘입어 2분기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리튬 사업 흑자 전환과 인프라 부문의 호조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30일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9조2590억원, 영업이익 8190억원, 순이익 7610억원을 기록했다 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7%, 영업이익은 34.9%, 순이익은 808.0% 증가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7.7%, 영업이익은 15.9%, 순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홀딩스

익은 40.1% 늘었다.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졌지만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인프라 부문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이후 성장

세를 이어갔다.

철강 부문에서는 포스코가 원료 단가와 유가 상승에도 판매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늘렸다.

이차전지소재 부문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양극재 재고평가 효과와 음극재 주요 고객사 판매 회복으로 수익성을 개선했다.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염수리튬1공장 조업 안정화와 설비 개선을 바탕으로 분기 기준 첫 흑자를 달성했다. 포스코필리바리튬솔루션은 판매 확대와 가격 상승으로 손익이 개선됐으며, 포스코HY클린메탈은 높은 가동률과 원가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매출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호주 가스전과 인도네시아 파암 사업 호조에 힘입어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포스코이앤씨는 건축사업 수익성 개선으로 실적을 방어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구조개편 목표도 기존 ‘2027년까지 128건·현금 2조8000억 원 창출’에서 ‘2028년까지 129건·현금 3조5000억 원 창출’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구조개편 12건을 통해 약 48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며 누적 85건, 2조2000억원의 현금 창출을 달성했다.

회사 측은 리튬 사업 흑자 전환과 광양제철소 신규 전기로 가동,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철강과 전략자원, 에너지자원을 축으로 한 ‘트리플 코어(Triple Core)’ 전략을 강화해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혜운 기자

dhahledhale@metroseoul.co.kr



metro

SK이노, 배터리 사업 흑자전환… 영업익 3.5조 육박

매출 29.1조, 영업이익 3조4873억
SK엔무브·SK온, 실적개선 이끌어

SK이노베이션이 윤활유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배터리 사업의 흑자 전환에 힘입어 올해 2분기 3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9조1572억원, 영업이익 3조4873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분기보다 각각 4조8662억원, 1조3251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9조7040억원 늘었고 영업

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실적 개선은 SK엔무브와 SK온이 이끌었다. SK엔무브는 중동 지역 경쟁사의 공급 차질에 따른 윤활기유 마진 상승과 재고 관련 이익으로 영업이익 6919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5034억원 증가했다.

SK온의 배터리 사업은 매출 2조9460억원, 영업이익 8218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전 분기보다 영업손익이 1조1710억원 개선됐다. 아시아 지역 판매량 확대와 원가 절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증가에 고객 보

상금 등 일회성 요인이 더해졌다.

SK온은 2분기 포드와 설립한 블루오벌SK 합작법인의 종료 절차를 마무리하고 SK온 테네시 단독 공장을 출범시키는 등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하반기에는 고정비와 구조적 원가를 낮추는 한편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주를 확대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유 사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래깅 효과와 재고 관련 이익으로 흑자를 이어갔지만 전 분기보다 이익 규모가 줄었다. SK에너지는 매출 13조2106억원, 영

업이익 6512억원을 기록했다. 6월 유가 하락과 일부 설비의 정기보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6320억원 감소했다.

SK지오센트릭은 파라자일렌(PX) 스프레드 축소와 판매량 감소로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839억원 줄어든 437억원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E&S는 도시가스 수요 감소와 발전소 정비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1773억원 감소한 1059억 원에 그쳤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 증산과 아시아 지역

정유설비 가동률 상승으로 유가와 정제마진의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학 사업은 3분기 PX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벤젠 등 주요 아로마틱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으로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이 전망된다. 석유개발 사업의 경우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및 베트남 등 자체 보유 광구에 대한 추가 생산정 시추 등을 통해 일산량 유지와 수익성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운영 효율과 수익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제철,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157억 수익창출 효과

유류 설비·철강 부산물 활용범위 확대

현대제철이 유류 설비와 철강부산물의 활용 범위를 넓혀 자원순환 기반의 수익성 강화에 나섰다. 사용이 끝난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해 현금화를 추진하는 한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철강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현대제철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구매본부 내에 매각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사 사업장의 유류·불용자산을 집중 조사하고 매각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운영을 통해 총 804건의 매각

대상을 발굴했으며, 매각과 내부 활용 등을 통해 약 157억원의 수익 창출 효과를 거뒀다.

현대제철은 사용이 끝난 설비를 단순 고철이 아닌 구리·텅스텐·니켈 등 유가급속이 포함된 자산으로 재평가해 매각 가치를 높였다. 일부 품목은 입찰 참여 업체를 기존 3~4개사에서 최대 16~20개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유도했다.

비철금속 전문업체와 종합상사 등 신규 매입처를 확보하며 유가지연 거래 기반도 넓혔다. 대표적으로 구리가 포함된 동스테이브와 몰드 704톤을 117억원에 매각했다. 폐전선은 종류별로 선별해 구리 회수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혼합 매각 방식보다 평균 매각단가를 20% 이상 높였다.

현대제철은 유류자산 매각과 함께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합철부산물의 자원순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성분 함유 슬러지를 폐기물이 아닌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자원화 전문 협력사와 연계한 순환자원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제철소에서 발생한 합철부산물이 외부 자원화 공정을 거쳐 다시 철강 생산에 활용되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부산물 활용처를 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혜운 기자 dhahledhale@

HD현대, ‘조선소 종합 솔루션’ 사업 본격화

美 프레이저 인더스트리 MOU

HD현대가 미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설계부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조선소 종합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한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조선소 현대화 사업을 첫 해외 프로젝트로 연결하며 미국 조선업 재진 시장 공략에 나섰다.

30일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프레이저 인더스트리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조선소 현대화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HD한국조선해양이 지난 3월 정관에 ‘디지털 엔지니어링-매뉴팩처링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이후 추진한 ‘조선소 건설 종합 솔루션’ 사업의 첫 프로젝트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조선소 진단 및 솔루션 도출 ▲야드·공장 레이아웃 설계 ▲로봇·자동화 설비 도입 ▲비용·공정·품질·생산성 최적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 솔루션 적용 ▲공급망 확대 및 기술 인력 양성 등 조선소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한다. /유혜운 기자

중소업체 “가맹거래 구입필수품목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본부·점주 분쟁원인 지적
“협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구입필수품목, 차액가맹금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에 구입필수품목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자체에 간이 분쟁조정절차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내놓은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구입필수품목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가맹사업법상 모호한 규정과 상당수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것’을 꼽았다.

또 가맹본부가 스스로 판단해 정보공개서에 구입필수품목을 등록하면 공정위와 법원의 위법 판단이 있기 전까진 가맹점주의 강제구매가 불가피한 등 사전 통제가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공생 관계임을 인식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구입필수품목을 지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전자·엔비디아 출신 전문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삼성전자·엔비디아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AVP본부 자율주행개발센터장으로 권정현 부사장(사진)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룹은 이번 영입을 통해 자율주행 영역 전반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 모빌리티 전략 실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권 부사장은 최근까지 삼성전지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을 주도했고 그 이전에는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품화를 담당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다.

권 부사장은 자율주행 인식 소프트웨어, 딥러닝,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등 AI 기술 개발·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내 자율주행 핵심 기술의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총괄한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SKT, 독자 LLM 키웠다… 산업·반도체 잇는 AI 생태계 구축

〈거대언어모델〉

자체 AI 모델 ‘A.X K2’ 공개
매개변수 6880억개로 성능 고도화
벤치마크 점수 전작보다 32%P↑
제조 현장 적용·바이오 협력 확대
국산 NPU서 자체 모델 구동 실증
독과모 선정 땀 공공·산업 확산

SK텔레콤이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앞세워 국산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자 AI 모델 성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제조·바이오 산업에 실제 적용하고 국산 AI 반도체와의 연동까지 추진하며 AI 풀스택 경쟁력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계기로 국내 AI 주도권 경쟁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자체 개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를 공개했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과모) 사업 선정을 앞두고 성능을 대폭 끌어올



SK텔레콤 초거대 AI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

/SK텔레콤

린 최신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매개변수(파라미터)를 6880억 개까지 확대하고 국내의 AI 성능 평가(벤치마크) 13종 평균 점수를 전작보다 32.2%포인트 높였다. 장문 이해와 지시 수행 능력도 83.9% 수준으로 향상됐다. SK텔레콤은 최근 공개된 알라바바쿠

웬(Qwen) 3.5와 딥시크 V4 등 중국 최신 오픈소스 모델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LLM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글로벌 AI 경쟁이 모델을 넘어 국가 경쟁력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AI와 구글, 메타는 물론 중국

기업들까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독자 모델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모델은 정부의 독과모 사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에 선정되면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바탕으로 모델 성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다. SK텔레콤도 이를 기반으로 자체 모델을 공공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현장 적용도 본격화한다. 내년 하반기 제조업 특화 AI 에이전트 데모 버전을 KG스틸 당진공장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코넥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SK바이오팜과 난치성 암 표적 치료제 개발을 위한 AI 기술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AI 모델 공급을 넘어 기업 데이터를 연결하는 AI 플랫폼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기 모델 공급 이후 데이터 연동과 보안, 시스템 운영까지 제공하면서 기업 고객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에서 자체 AI 모델 구동 실증을 진행하며 국산 AI 반도체 기반 소버린 AI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서 2023년에는 자회사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의 합병을 지원하며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실었다.

글로벌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일본 NTT, 대만 중화텔레콤과 총 7600억원 규모의 ‘카탈라이트 캐피탈’ 펀드를 조성해 AI 스타트업 투자와 기술 확보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AI 모델과 산업 적용, AI 반도체를 연결하는 ‘AI 풀스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AI 경쟁은 모델뿐 아니라 컴퓨팅 인프라와 반도체, 산업 적용 사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며 “AI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기업이 플랫폼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국내 전선업계, 해저케이블 포설선 확보전

설치 수요 2028년까지 9.5배 급증
고사양 선박 최대 40척 추가 필요
생산·시공 결합 턴키 사업 확대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설치수요가 급증한 반면 이를 시공할 고사양 포설선은 부족해 사업 병목이 심화하고 있다. 포설선 확보가 수주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전선업계도 생산과 시공을 결합한 턴키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글로벌 에너지 데이터 기관 에너지 솔루션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저케이블 설치 수요는 지난 2020년 1932km에서 오는 2028년 1만8173km로 9.5배 늘어날 전망이다. 고사양 포설선은 60~7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항 가능한 선박은 50~60척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 2028년까지 투입 일정이 잡혀 있어 신규 수요 대응에 25~40척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포설선 부족으로 건조 가격은 지난 2020년 1억7000만 유로에서 올해 2억4000만 유로 이상으로 41% 올랐고, 일일 용선료도 8만~13만 달러로 4배가량 뛰었



LS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
/LS마린솔루션

다. 설치비 비중 역시 전체 공사비의 12~18%에서 30~38%로 확대되면서 오르스 테드 등 개발사의 투자 결정 연기와 사업 중단도 잇따르고 있다. 포설선 공급은 핵심 장비인 텐서너캐러셀의 24개월 이상 납기와 제한된 건조 조선소, 조선사들의 LNG선·방산 선박 우선 건조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고 있다.

발주처는 포설 중 손상 위험과 책임 공방을 줄이기 위해 제조사의 턴키 시공을 선호한다. 무겁고 굵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은 해저 지형과 조류의 영향으로 손상되면 재제작 비용과 납기 지연이 발생하는 만큼 구조와 허용 장력

을 가장 잘 아는 제조사의 직접 시공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LS마린솔루션은 작재량 1만3000톤급 HVDC 포설선을 건조해 오는 2028년 상반기부터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인도 후에는 작재량을 7000톤으로 늘린 GL2030과 함께 총 4척, 이 가운데 대형 포설선 2척을 운용한다.

대한전선은 최근 1만톤급 포설선 ‘스칸디나비아’호를 확보해 기존 ‘팔로스’호와 2척 체제를 구축했다. 다만 HVDC 해저케이블 직접 시공 실적은 없어 트랙레코드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글로벌 HVDC 해저케이블 시장은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프랑스 넥상스, 한국 LS전선, 덴마크 NKT 등 4개사가 약 85%를 차지하며 모두 자체 포설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프리즈미안은 1만7000톤급 레오나르도 다빈치호 등 대형 포설선 5~6척을 운용하며 신조선을 추가 건조 중이고, 넥상스는 ‘오로라’와 ‘일렉트라’를 투입했다. NKT도 1만톤급 이상 차세대 포설선 ‘엘레오노라’ 건조를 추진하며 보조선을 포함한 2~3척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중진공·신보, 中企 글로벌 진출 지원 맞손

정책자금·보증 연계해 자금조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성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신보와 30일 대구에서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및 신보 보증 연계를 통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 ▲국내의 금융제도 연구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 과정에 걸쳐 정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신보의 보증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을 바탕으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오른쪽)이 강승준 신보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추가로 중진공의 해외 인프라와 신보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유망 기업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및 KSC(K-스타트업센터) 등 해외거점을 활용해 현지 정착 지원부터 투자유치·사업화까지 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 간 상호 협력 및 유관기관 간 접점을 확대한다.

/김승호 기자 bada@

NC AI·씨메스로보틱스, 제조·물류 피지컬 AI 맞손

월드모델·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결합
산업 데이터 기반 학습·현장 실증

NC AI가 제조·물류 산업에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AI 기반 로보틱스 전문기업 씨메스로보틱스와 협력한다.

NC AI는 씨메스로보틱스와 피지컬 AI 기반 공동 연구개발과 상호 기술 공유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AI 기술과 로보틱스 역량을 결합해 제조·물류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차세대 피지컬 AI 기반 로보틱스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앞으로 ▲피지컬 AI 기반 공동 연구개발 ▲핵심 기술 및 연구 성과 공유 ▲차세대 로보틱스 솔루션 발굴 및 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NC AI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과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월드모델(World Model)과 로봇 범용 기능 구현을 위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이 주변 환

경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고도화한다.

씨메스로보틱스는 제조·물류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VFM)과 RFM, 정밀 로봇 제어 기술을 활용해 AI 모델의 산업 현장 실증과 고도화를 담당한다.

양사는 산업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AI 학습과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에 활용하고, 학습된 AI 모델을 다시 실제 로봇 시스템에 적용하는 선순환 개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기업전용 5G ‘안전관리 위치’ 선택

심박수·활동량·현장 환경 통합 분석

KT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지원에 나선다. KT는 기업전용 5G 부가 서비스 ‘안전관리 위치’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고객이 사용하는 전용 5G망은 별도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일반 네트워크와 기업 내부망을 분리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5G 전용 게이트웨이를 통해 개인 기입자를 위한 일반 통신망과 임직원을 위한 기업 내부망 접속 데이터를 분리한게 핵심이다.

안전관리 위치는 삼성전자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관리 솔루션’이 탑재된 기업전용 갤럭시 위치를

통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온도·습도 등 환경 정보와 근로자 심박수, 활동량 등 생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개인 맞춤형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안전 관리 위치의 대표 기능은 SOS 요청, 낙상 및 추락 감지, 심박수 이탈 감지, 열스트레스 관리, 위험 구역 출입 관리 등이다. 안전관리 위치 사용자는 갤럭시 위치를 통해 심박수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주변 동료와 관리자에게 알린다. 안전 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는 물론 날씨·온도·위치 등 현장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코스피 바닥은 어디?... “분할매수·리스크 관리 병행 필요”

‘AI 공포’에 요동치는 시장

과도한 공포로 인한 패닉셀 상황
현재 코스피 저평가 구간 진입

추격매도보다 분할매수 전략 추천
신용·레버리지 배제 현물중심 대응

삼성·SK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
추가 하락 가능성에도 반등 준비해야

‘코스피 5000’은 숫자 자체로 ‘공포’다. 하지만 시장의 고민은 오히려 지금부터다. 인공지능(AI) 버블의 중심에 있는 순환거래가 25년 전 닷컴버블 때를 닮아 있어서다. 그 중심에는 ‘AI 박람회’의 슈퍼스타 엔비디아가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현재 미국 경제는 AI 투자, 즉 ‘AI 거품’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의 ‘AI 및 반도체 굴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한다.

‘9천·1만피’ (코스피 지수 9000과 1만)를 외치던 증권가에서도 이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전문가들은 증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반도체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 엔비디아발 ‘순환금융’ 거래 논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움직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악재가 중첩되며 나타난 ‘패닉 셀’에 가깝다”면서도 “(증시의) 급격한 하락은 시장이 ‘행복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29일(현지시간) 시장은 요동쳤다. 다우존스가 2.19% 넘게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했다. 미국채 금리는 급등(채권값 하락)했다. ‘AI 공포’에 시장이 백기를 드는 모습이다. 이날 코스피는 1.23% 하락한 5593.56에 마감했다.

◆“펀더멘털 아닌 심리 위축…이번 조정은 과도한 하락”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 14일 보고서에서 코스피 6800선을 향후 증시 흐름을 가늠할 핵심 지지선으로 꼽기도 했다. 6800선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지지선은 6500선으로 내려가고, 이마저 무너지면 6000선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6000선 아래로 추락하며 코스피는 다시 새로운 바닥을 찾아야 하는 상황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요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보다 69.68포인트(p)(1.23%) 하락한 5593.56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7.90포인트(p)(2.70%) 하락한 644.78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9.3원 내린 1437.4원 주간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에 놓였다. 일차적으로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 흥행과 중국 국영기업의 심자외선(DUV)노광장비 개발 소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시장 우위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웠고, 투자심리까지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낙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국내 수급 교란, 미국 금리 상승 우려 등이 시장을 짓누르며 조정 국면을 맞았다”며 “수급 장세에서 과도한 공포가 부른 패닉셀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익 증가와 주주 가치 제고 등을 감안하면 현재 코스피는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최근 조정 폭이 큰 부분은 펀더멘털보다 변동성 확대와 투자심리 위축 등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며 “중국 CXMT 상장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중국 내수 반도체 수요 증가 속도가 빠르고, CXMT 증설 규모를 감안해도 2028년까지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급락 과정에서 극도로 위축된 투자심리와 수급 압박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악재성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고, 현실 가능성 낮은 악재까지 기정 사실화하면서 투자심리와 수급 압박 가중됐다”고 평가했다. 창신 메모리의 위협과 중국 기

업의 DUV 노광장비 자체 개발 이슈가 과대 평가됐다는 얘기도.

김현 다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CXMT 상장과 중국 노광장비 국산화는 현 시점에서 가까운 미래 이익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기보다 심리적 촉매에 가깝다”며 “이번 반도체 급락은 기존 급상승장에서 높아진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역설적으로 충격을 증폭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의 모하메드 아파바이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딩 전략 헤드는 지난 28일 기관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에서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2일 약 525억달러(약 76조 3700억원)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190억달러(약 27조 6400억원) 정도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씨티 리서치팀의 공식 자료가 아니라 주식 트레이딩 부문의 전라가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한 시장 논평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전체 손실액은 약 56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자산별로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약 170억달러(약 24조 7400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김본부장은 “최근의 잦은 서킷브레이커는 펀더멘털 변화보다 상승 과정에서 높아진 반도체 집중도와 레버리지 ETF의 수급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지난 29일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F4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규제를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개미들의 ‘행복 매도’와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으로 7월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4.01%, 29.62% 하락했다. 전세계 증시 중 가장 큰 하락률이다. 중국 선전성분지수의 두 배를 웃돈다. 일본 닛케이225와 대만 가권지수(TAIEX)도 최근 한 달간 각각 12.31%, 13.43% 하락하는 데 그쳤다.

◆“바닥 근접했지만 변동성은 지속”... 레버리지·수급 변수 주의

날개없는 추락에 개인투자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신모(32·여)씨는 “어제 주가가 떨어져 3000만원 넘게 주식을 추가 매수했는데, 오늘 주가가 더 내려가니 하늘이 노랗다”며 “이젠 남은 돈도 없어 자포자기 상태”라고 했다. 이들 만에 약 15% 손실을 봤다는 최모(28·남)씨는 “낙은 폭염인데, 내 주식 창은 파란불만 가득한 장미”라고 했다. 이씨는 “상승장일 때 주식을 뺐다는 친구들을 보면 괜히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개미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

시장에서는 지금은 소나기(변동성)가 지나가길 기다릴 때라고 얘기한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가 악재장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상반기처럼 조정 때마다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며 “단기 반등 이후 다시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도 “주가 변동성이 계속 클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격 매도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고 했다. 양 센터장은 “이번 급락에서 확인됐듯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을 증폭시켜 개인의 손실을 키운 주범이 됐다”며 “신용·레버리지를 배제한 현물 중심 대응, 그리고 반등 시 일부 차익실현으로 현금을 재확보하는 리스크 관리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증시와 주식 전망도 보수적이다.

DB증권은 코스피 5300~5700선을 주요 지지대로 제시했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5300~5700구간에 전체 거래량의 약 17%가 집중돼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돼 있다”며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한 만큼 향후 추세 전환의 핵심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55만원에서 37만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4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각각 주저앉혔다.

김 본부장은 “금리 부담에 따른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위축이나 반도체 이익 전망의 급격한 하향 조정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추가 회복 시도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전고점을 향한 ‘V자 반등’보다는 바닥권 확인 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주가를 결정하는 무게중심이 AI 수요 자체에서 고객사의 수익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업체의 성장률뿐 아니라 현금흐름과 영업이익률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센터장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재 위치는 매도보다는 보유 또는 분할 매수를 통해 반등을 준비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도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AI 투자의 지속 가능성인데, 빅테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AI 투자의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전체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공모주 잔혹사’ 방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세부기준 공개

금융위, 오는 11월 13일 시행
사전수요예측 제도 등 도입

기업공개(IPO) 이후 기관투자자의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막기 위한 코너스톤(Cornerstone) 투자자 제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공모가 산정 전에 기관수요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함께 도입해 IPO 가격 결정의 합리성과 상장 이후 주가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하위법규에는 참여 자격과 운영 방식, 보호예수 기간 등 세부 기준이 담겼다. 입법에 고 기간은 9월 8일까지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주관사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가치와 희망 공모가격, 공모 물량 등에 대한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기관 수요예측을 실시하지만 앞

으로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공모주 일부를 일반기관 수요예측 전에 미리 배정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하는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 물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장기투자자를 확보해 IPO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사전수요예측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등 현행 기관 수요예측과 유사한 자격을 갖춘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여기에 더해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IPO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상대 기준을 적용해 중소형 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열었다.

코너스톤 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는 전체 물량의 50%를 6개월, 30%를 8개월, 나머지 20%를 10개월 동안 의무 보유해야 한다. 보호예수 해제 시점이 한꺼번에 몰려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기를 분산했다.

배정 물량은 일반 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물량을 제외한 기관투자자 배정분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는 최대

20%, 코스닥 상장사는 최대 30%로 제한된다. 개별 기관의 한도는 각각 10%, 20%다. 공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책펀드 배정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특성을 반영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발행사나 인수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이나 다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수요예측 과정의 기업 정보는 비밀유지계약(ND A)을 체결한 기관에만 제공하고, 정보 제공과 수요예측, 사전청약 관련 기록은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하정원 기자 zelkova@

백화점 ‘호조’·마트 ‘역성장’… 외국인 소비가 실적 갈랐다

**2분기 유통가 업태별 매출 희비
면세점보다 백화점 찾는 외국인 ↑
대형마트 매출 전년비 7.4% 하락
편의점, 음료 판매 늘어 실적 개선**

올해 2분기 유통업계는 소비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백화점은 명품 소비와 관광객 유입 효과로 고성장을 이어간 반면 대형마트는 온라인 식품 구매 확대의 직격탄을 맞았고, 편의점은 무더위와 점포 효율화 효과로 반등하는 등 업태별 실적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0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들은 업태별로 매출 희비는 엇갈렸지만 백화점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며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업태는 백화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6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



사진은 서울 시내 백화점. 유통업계가 업태별로 매출 희비는 엇갈렸으나 점포효율화 등의 효과로 전반적으로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르면 백화점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했다. 월별로도 4월 21.7%, 5월 24.5%, 6월 22.2%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며 오프라인 유통 성장을 이끌었다.

배경에는 자산가와 고소득층 소비가 견조했던 점이 꼽힌다. 통계청 가계동향조

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고, 의류·신발 지출도 12.0% 늘었다. 산업부 통계에서도 상반기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은 30.8%, 6월에는 34.3% 증가하며 명품과 패션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호실적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카드 소비액은 5월 처음으로 월간 2조 원을 돌파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진 데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정책 변화로 면세점보다 백화점을 찾는 외국인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명품 매출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올해 1~5월 15.8%, 롯데백화점 본점은 30%까지 확대됐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식품 부문의 오프라인 수요 부진이 이어지며 2분기에도 9분기 연속 매출 역 성장을 기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특히 6월 식품군 매출은 12.8% 줄어 식품 구매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은 식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8.1%, 6월 11.7% 성장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개별 기업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의 기

업회생절차로 점포 영업이 축소·중단되면서 고객 수요가 이마트와 롯데마트로 이동하는 반사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은 이마트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1.6% 증가한 67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편의점 업계는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2분기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이른 무더위로 음료와 빙과류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구매 건수 증가율도 2월 0.6%에서 6월 3.1%로 꾸준히 확대됐다.

여기에 GS25와 CU 등 주요 업체들이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중대형 우량 점포 중심으로 출점 전략을 전환한 효과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관광지뿐 아니라 골목상권으로 확산되면서 GS리테일과 BGF리테일 모두 2분기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현대리바트, ‘원톤 인테리어’ 시장 공략

**벽·도어와 같은 색 주방가구 출시
화이트 8종, 우드 7종, 스톤 4종 등**

현대리바트가 ‘원톤(One-tone) 인테리어’ 수요 공략에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는 토탈 인테리어 브랜드 ‘리바트 집테리어’를 통해 벽·천장, 몰딩·도어와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주방가구 ‘L300G’와 ‘NL500G’를 출시하고, 원톤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 론칭한 리바트 집테리어는 주방가구, 욕실, 창호, 벽지 등 인테리어 전 품목의 상담부터 공간 컨설팅, 시공, 사후관리(A/S)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인 주방가구는 고객이 선택한 인테리어 필름을 제작 단계부터 적용하는 맞춤형 제품이다. 고객은 동일한 필름



‘원톤 인테리어’가 가능한 현대리바트 주방가구 새 제품 ‘L300G’ 모습. /현대백화점그룹

으로 방문과 벽, 몰딩, 걸레반이 등을 시공해 공간 전체의 색상을 통일할 수 있다.

현대리바트는 현대L&C와 협업해 벽·몰딩용 인테리어 필름 ‘보닥’의 베스트셀러 19종을 동일한 디자인의 주방가구 전용 필름으로 제작했다. 이를 통해 벽과 몰딩에 사용한 색상과 패턴을 주방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색상은 화이트 계열 8종, 우드 패턴 7종, 스톤 디자인 4종 등으로 구성했다.

현대리바트는 앞으로 원톤 인테리어 수요 확대에 맞춰 주방가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구용 필름 종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CJ제일제당, 식물성 브랜드 ‘얼티브’ 리뉴얼

저당 두유 신제품 선택

CJ제일제당이 식물성 웰니스 브랜드 ‘얼티브(ALTIVE)’를 리뉴얼하고 저당 두유를 출시하며 식물성 음료 사업 확대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얼티브의 브랜드 로고와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하고 신제품 ‘얼티브 저당두유’ 2종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프로틴 음료 중심의 제품군을 두유까지 확대하며 식물성 음료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은 자연을 연상시키는 초록색 나뭇잎을 모티프로 적용해 식물성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다. 대표 제품인 프로틴 음료도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맛과 향, 목 넘김 등을 개선했다. 회사는 식물성 단백질 특유의 이취와 텃텃한 식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

명했다.

함께 출시한 ‘얼티브 저당두유’는 과로와 아몬드 2종이다. 저당 설계와 함께 고칼슘·고식이섬유·고단백을 내세웠다. 과로 제품은 단백질 4.6g과식이섬유 5g, 아몬드 제품은 단백질 4.7g과식이섬유 3g을 담았다.

CJ제일제당은 기능성을 앞세운 제품을 중심으로 두유 시장이 성장하는 점에 주목해 제품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얼티브는 2022년 식물성 대체우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프로틴 음료와 유산균 음료 등으로 제품군을 넓혀왔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3200만 개를 넘어섰으며 누적 매출은 약 460억원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식물성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두유를 비롯한 제품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하이트진로음료 ‘테라 제로’ 광고 공개

하이트진로음료는 개그맨 김원훈과 함께한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 ‘테라 제로’의 신규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제조 단계부터 알코올을 배제한 테라 제로의 특성을 바탕으로 일관 맥주와 미량의 알코올을 함유한 비알코올 맥주와의 차별점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고는 ‘갈증 제로’, ‘월요병 제로’, ‘변뇌 제로’ 등 3편으로 구성됐다. ‘갈증 제로’ 편에서는 운동 중 물 대신 테라 제로를 마시고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담았다. ‘월요병 제로’ 편은 출근 전 테라 제로를 마시는 장면을, ‘변뇌 제로’ 편은 다도 시간 대신 테라 제로를 선택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광고는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 명동에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건다

4K 라이브 구현 가능한 LED 패널 적용

롯데백화점은 올해 ‘롯데타운 명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쇼핑과 문화, 콘텐츠, 관광을 결합한 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본점 영플라자 외관에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롯데타운 라이트’를 도입한다. 가로 77m, 높이 21m(1614㎡) 규모로 명동 상권 최대 규모의 미디어파사드다. 4K 라이브 구현이 가능한 LED 패널을 적용했으며, 최대 1km 거리에서도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롯데타운 라이트’는 롯데백화점의 시즌 캠페인과 테마 이벤트를 비롯해 K-컬처 기반의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을 선보이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중구의 ‘명동스퀘어’ 조성 사업에도 참여해 명동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타운 라이트’는 오는 11월 과테의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영플라자 전경. /롯데쇼핑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모티브로 한 티저 영상을 공개한 뒤 12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8월부터는 본점 지하 1층 ‘코스모너지 광장’ 리뉴얼 공사도 시작한다. 1988년 신관 개점과 함께 조성된 코스모너지 광장은 을지로입구역과 본점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하루 평균 약 2만 명이 이용한다.

약 840㎡ 규모의 코스모너지 광장은 기존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그니처 공간으로 조성된다.

/김서현 기자

팜젠사이언스, 부패방지 ‘ISO 37001’ 인증

기업 신뢰도 강화

팜젠사이언스가 전체 사업 영역에서 윤리 경영 기준을 확립하며 기업 신뢰도를 강화한다.

팜젠사이언스는 한국준법진흥원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SO 37001 인증은 경영시스템상 부패 예방 및 탐지, 대응을 위해 수립한 정책과 절차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제도다.

이번 인증 범위는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판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판매다.

팜젠사이언스는 제약 전문 헬스케어 기업이다. 지난 1966년 설립 후 1990년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해 30년 넘게 상장

제약사 입지를 다져왔다. 또 미국 진단·헬스케어 기업 엑세스바이오를 비롯해 알에프바이오, 웰스바이오, 비라이트인베스트먼트 등을 거느리고 제약과 진단을 아우르는 종합 헬스케어 그룹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박희덕 팜젠사이언스 부회장은 “부패방지 경영은 기업 경영의 기본이자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용기 한국준법진흥원 원장 “제약·헬스케어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인허가,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접점을 갖는 만큼 청렴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큰 분야”라며 “팜젠사이언스가 ISO 37001 인증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국제표준 인증을 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AI 내재화 에너지기업으로” 재무회복·혁신 대전환 선언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 취임

중앙통제소 찾아 수급·안전 점검
기업가치·브릿지 에너지 역할 제시
수요예측·공급망·트레이딩 고도화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동시 추진

한국가스공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공식 취임했다. 홍 신임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함께 AI(인공지능)를 내재화한 혁신적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가스공사는 홍의락 신임 사장이 지난 29일 대구 본사에서 제19대 사장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지난 23일 가스공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차기 시장으로 선임된 뒤 산업통상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공식 취임했다. 사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3년이다.

홍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국 가스공사의 위상과 가치 제고 ▲브릿지 에너지 역할 확립 ▲AI 기반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재설계를 3대 경영방향으로 제시하고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연결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하고 “한국가스공사는 단순히 천연가스를 수입·공급하는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공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경쟁력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이 지난 29일 대구 본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본사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스공사

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춘 청사진도 내놴다. 홍 사장은 천연가스를 재생에너지와 상호 보완하는 ‘브릿지 에너지(Bridge Energy)’로 육성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특히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예측과 공급망 운영, 글로벌 트레이딩 등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가스공사를 ‘AI Native Energy Company(AI 내재화 에너지 기업)’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다.

홍 사장은 취임식을 마친 직후 현장경영에 돌입했다. 본사 각 부서와 노동조합을 방문해 소통한 뒤, 가장 먼저 가스 공급의 심장부인 중앙통제소를 찾았다. 홍 사장은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보안관제센터와 동내공급관리소를 차례로 찾아 폭염·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한 홍 사장은 “에너지 안보도, AI 혁신도 결국 안전한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현장 중심 경영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AI 시대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임직원과 함께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연결하는 한국가스공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홍 사장은 제19·20대 국회의원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이재명 대통령(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권 ‘392조 첨단산업 투자’ 속도

민관합동 실행 TF 본격 출범

100일 내 범부처 지원책 마련

삼성·SK·셀트리온 투자 지원

정부가 충청권에 예정된 392조 원 규모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적기에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실행 기구가 본격 가동한다. 향후 100일 이내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기업들의 충청권 투자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이 나오는 등 기업들의 투자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 첨단산업의 조력자 선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충청대(충청권 첨단전략

산업 대도약) 민관합동 실행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다.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은 충청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과 충남·충북·세종·대전 등 충청권 4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삼성, SK, 셀트리온, 네이버 등 충청권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주요 기업의 담당 부사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에서 기업들은 392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적기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용수·전력의 안정적 공급, 세제 혜택 확대, 기반시설 확충 등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행 TF를 개최해 투자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100일 내에 용수·전력 인프라와 세제 혜택 등을 포괄하는 ‘충청권 기업투자 범부처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 AI·데이터 서포터즈 활동 마무리

11대 1 경쟁률 뚫은 대학생 참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공공데이터 확산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무보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에서 ‘AI·데이터 서포터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무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해양환경공단이 함께 추진한 이 사업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와 가치를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원)생 서포터즈는 약 3개월간 각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영상과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며 공공데이

터 홍보에 힘썼다.

이번 사업은 무보가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의 일환이다. 무보는 지난해 9월 공공부문 AI 선도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관련 조직을 본부로 격상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무보는 다양한 정보를 플랫폼에 담아내고, 다이렉트 상품에 AI를 접목하여 고객 만족의 차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승희 무보 AI·디지털사업본부장은 “지난 3개월간 서포터즈의 열정적인 활동에 힘입어 공공데이터 이용이 크게 활성화됐다”며 “앞으로도 무보는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를 적극 발굴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사업체 종사자 18개월 만에 최대 증가

고용부,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전년 동월보다 24만8000명 늘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1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년간 내리막길에 있던 건설업에서도 간만에 소폭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2046만6000명) 대비 24만8000명(1.2%) 증가했다.

사업체종사자 수는 6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26만2000명이 늘어난 이후 최대폭 증가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2만4000명(4.8%)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금융 및 보험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또한 각각 3만3000명(3.8%), 3만3000명(3.4%) 증가했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역시 1만2000명(0.3%) 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긴 기간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업에서 7000명(0.5%) 늘면서 2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만 건설수주, 착공 면적, 건설기성 등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각각 2만9000명(-1.3%), 5000명(-1.6%) 줄었으며, 정보통신업 역시 3000명(-0.4%) 감소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뉴시스

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은 1701만7000명으로 17만4000명(1.0%) 증가했고 300인 이상 또한 369만7000명으로 7만4000명(2.0%) 늘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전년동월 대비 7만6000명(0.4%) 늘었으며 임시일용근로자 역시 15만명(7.9%) 증가했다. 기타종사자 또한 2만2000명(1.6%) 증가했다.

빈 일자리 수는 15만6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4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접어든 4월 이후 3개월 연속 늘고 있다. 빈 일자리는 현재 사람을 뽑고 있고,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7월에 새롭게 일이 시작될 일자리를 파악한 결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종=김연세 기자 kys@

건통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과징금 1.3억

공정위,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건통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건통건설은 에스구미요양원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마쳤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3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금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대금을 받고도 이를 수

급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건통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의대금 지급, 서면 발급, 선금금 지급, 대금지급 보증, 설계변경 조정 의무 등을 전방위로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3 이동희 님의 이야기

“낮선 곳에서도 한국처럼 데이터를 쓰고싶어요.
가족 챙기는 번거로움도, 요금 걱정도 없이 편하게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간편하게’ 바꿔드립니다

여행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담아
U+ 로밍을 더 심플하게 바꿨습니다

통화료 걱정 없는 해외 통화는 물론
가족 로밍 나눠쓰기 자동화까지

세계 어디서나 이 모든 것이 당연해지도록
5G 데이터 로밍 100개국 지원으로
가장 쉬운 로밍의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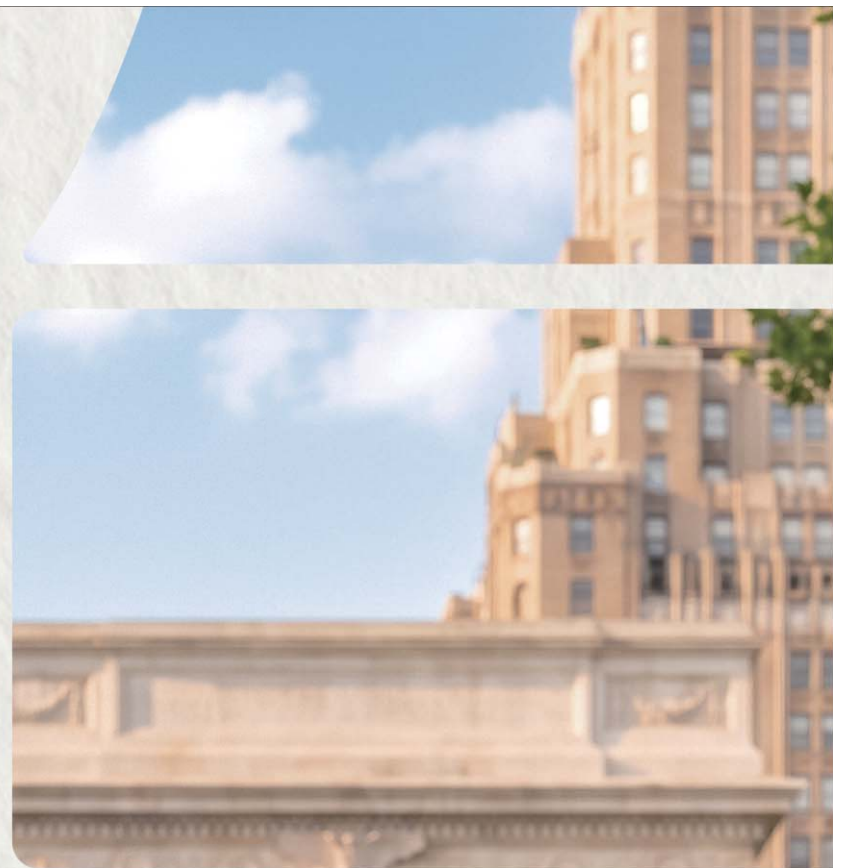
여행을 심플하게

Simply. U+

고객님의 안전한 통신 생활을 위해 전국 매장 및 홈페이지에서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로밍패스 나눠쓰기' 결합가족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대표자가 설정 시, 자동 가입 가능하며(26년 7월 기준, 국내 유일 제공)
상세 내용 및 이용 조건은 'U+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확인 가능
※ 익시오 해외 통화 혜택은 AI 통화앱 익시오를 통해 제공, U+ 로밍 요금제 가입 또는 WiFi 등 데이터 지원 환경에서 별도 통화료 없이 이용 가능
※ 익시오 해외 통화 혜택은 '일본 → 국내 통화' 서비스 제공 이후 '26년 7월부터 적용 국가 및 혜택 범위 확대 예정'
※ 5G 커버리지 100개국 서비스 제공('26년 7월 기준, 자치령 포함) 익시오 로밍콜은 해당 국가 대상 하반기 내 출시 예정



서울 8개교 남녀공학 전환… 무학여고 총동창회 소송 공방

서울시교육청, 2028년까지 전환
학령인구 급감 대응, 불균형 해소
학교당 3년간 총 3억 지원금 편성
무학여고 총동창회 반대 투쟁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성심여고 등 서울 소재 중·고교 8곳이 내년 또는 내후년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총동창회 차원에서 전환에 강력히 반대해 온 무학여고 역시 공학 전환 대상 학교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총동창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11개교 가운데 8개교를 전환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무학여고, 정원여자중학교, 성심여자중학교, 한양중학교,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신정여자중학교, 서울신정고등학교 등 7곳은 2027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



무학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후암동 서울시교육청 옆 계단에서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로 운영된다. 성심여고는 한 해 늦은 2028학년도에 전환된다.

이번 조치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특정 지역·학교에 쏠린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히고자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중학교 5곳, 고등학교 6곳 등 총 11개교로부터 전환 신청을 받고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 여건, 전환 필

요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 시설 여건과 관계 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2027학년도 전환을 신청한 9개교 중 7곳, 2028학년도 신청 2개교 중 1곳이 '적정' 판정을 받아 최종 전환이 결정됐다.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휘경여자중학교, 휘경여자고등학교, 송곡고등학교는 '중장기 검토(미승인)'로 분류해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8개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성원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지도 인력 채용 등을 위해 학교당 3년간 총 3억 원(운영비 2억4000만원·인건비 60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편성해 지급한다. 화장실·탈의실·보건실 등 학생 편의시설 확

충을 위한 시설사업비도 학교별 사업 규모에 맞춰 차등 지원한다. 교명 변경, 조례 개정 등 개교 전 거쳐야 할 행정 절차 역시 뒷받침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남녀공학 전환 확정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학여고 총동창회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총동창회는 '무학여고 남녀공학전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지난 20일 오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 자리에서 공학 전환이 이뤄질 경우 식발·단식을 포함한 천만 농성과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구의·신길·갈현동, 신통기획 후보 선정

구의동 32일대, 동의율 73% 집계
신길동 113의 5, 노후도 81% 달해
갈현동 501의 1, 연신내 연계 정비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동,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갈현동 등 3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날 '2026년 제3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2만9780.5㎡), 영등포구 신길동 113의 5 일대(3만1677㎡), 은평구 갈현동 510의 1 일대(12만9814.1㎡)를 후보지로 정했다.

구의동 32 일대는 사업 동의율이 73%로 주민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차산역·천호대로와 연계

된 광역교통 접근성도 고려됐다.

신길동 113의 5 일대는 건축물 노후도가 81%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시는 인접한 기존 재개발 후보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해 거주 여건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갈현동 510의 1 일대는 연신내 생활권 계획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보할 계획이다. 후보지 경계는 선정위원회 조건 이행과 신통기획 등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시는 3곳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공정을 관리한다. 통상 18.5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여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올 하반기 신통기획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정비구역 지정은 2년 안에 마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조건부 선정 지역은 조건을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사업성 보완 제도인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분 쪼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의동·갈현동 일대가 7월 1일, 신길동 일대가 4월 24일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한양컨트리클럽, 이태섭 신임 대표 선임

현장 중심 경영 노하우로 경쟁력 ↑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이사장 조갑주)은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태섭(59) 신임 대표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태섭 신임 대표이사는 수년간 경기 남양주 소재 한림광릉컨트리클럽에서 전문 CEO로 재직하며 재무경영과 마케팅, 각종 프로모션 행사 운영, 직원과의 소통, 친환경 경영 등을 두루 이끌어온 골프장 경영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골프산업의 성장 과정 속에서 현장 중심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과 조직 운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으며, 안정적인 경영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서울한양CC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태섭 신임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1호 골프장인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의 대표이사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조갑주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북도-대구시, 신공항·행정통합 공동대응

이철우 지사, 추경호 시장 협력 강화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29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양측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전문가와 국회의원,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며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조속한 시일 내 다시 만나기로도 합의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합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정기국회 이전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과의 시·도 지사가 참여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역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정부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29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공동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통합특별시 우선 이전 방침을 고려해 대구·경북에도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5급3특 발전전략과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산업에 대한 대응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TK신공항 추진과 행정통합을 연계해 광역경제권 기반을 마련하고 토지보상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핵심 사업"이라며 "신공항과 행정통합 등 시·도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오는 8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구시 방문을 계기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포항시, 동북권 ICT콤플렉스 개소… 인재양성·기업지원 나서

AI·SW 개발자 양성, 취·창업 지원
교육장 등 교육·실습 인프라 구축

포항시가 경북·대구·강원을 아우르는 AI·SW 교육과 산업 디지털 전환 거점인 동북권 ICT콤플렉스를 개소하고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에 나섰다.

포항시는 29일 첨단해양R&D센터에서 동북권 ICT콤플렉스 개소식을 열고 AI·SW 교육과 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거점 운영을 시작했다.

동북권 ICT콤플렉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는 포항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핵심 교육·실습시설이다. AI·SW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산업의 AX(AI 전환) 지원을 목표로 구축됐다.

센터에서는 AI, 블록체인, 데이터,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비롯해 AI·SW 개발자 양성과 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실습, 글로벌 빅테크 기업 협력 교육,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29일 첨단해양R&D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AI·SW 교육과 산업 디지털 혁신을 이룰 동북권 거점의 출범을 알렸다.

또 첨단해양R&D센터 9층에 AI·SW 교육장 2곳과 오픈랩, 테스트베드, 3D프린터실 등 교육·실습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대구·강원의 인재와 산업을 연결하는 AI·SW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존 김천에서 운영되던 동북권 거점 기능은 포항으로 이전했다. 포항시는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로봇 등 미래 신산업 기반과 포스텍·한동대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역량을 활용해 청년과 재직자의 디지털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용선 포항시장과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우 경북도의회 부의장, 박시균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기관, 교육기관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후에는 'AI, 이는 만큼 일상이 달라진다'를 주제로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청년에게는 배움과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디지털 전환 기반을 제공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김진곤 기자 jingon@

LOTTERIATM basil mozzarella tomato pineapple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나폴리 맛피아 VS 삐딱한 천재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술 입은 LG OLED... 국립현대미술관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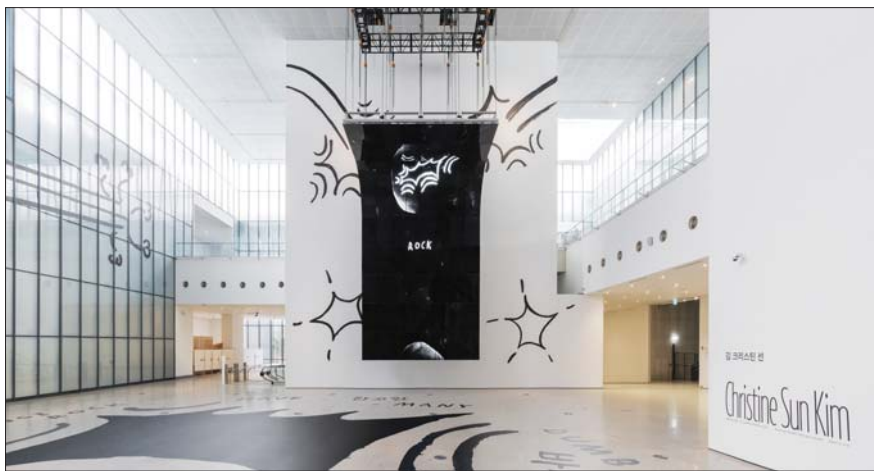
55형 OLED 스크린 72대 활용
초대형 곡면 디스플레이 구현

LG전자가 국립현대미술관(MMCA)과 손잡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대형 미디어아트 전시를 선보인다. 자체 OLED 기술과 현대미술을 결합해 관람객들에게 차별화된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LG전자는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서울박스'에서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MMCA X LG OLED 시리즈' 두 번째 전시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완고한 바위, 무모한 싸움들'을 주제로 다룬 동명의 대형 설치 미술로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김 크리스틴 선' 작가와 국립현대미술관, LG전자의 첨단 OLED 기술이 함께 탄생시킨 작품이다.

LG전자는 이번 작품 구현을 위해 55형 OLED 스크린 총 72대로 초대형 곡면



LG전자가 국립현대미술관과 손잡고 OLED 스크린 72대로 김 크리스틴 선 작가의 대형 설치 미술을 전시한다. 사진은 김 크리스틴 선 작가의 '완고한 바위, 무모한 싸움들' 작품. /국립현대미술관

스크린을 구성했다. 관람객들은 완벽한 블랙과 정교한 색 표현력을 갖춘 LG OLED를 통해, 작가의 작품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수어(ASL)의 움직임과 고전 만화의 모션 라인을 시각적 문법으로 재해석한 작가의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화면 가득 구현하며, 기술

과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전시 경험을 선사한다.

'MMCA X LG OLED 시리즈'는 국립현대미술관과 LG전자가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미감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하는 협업 프로젝트로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시각적 실험을 제안하는 역량 있는 작가와 함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의 대명사

인 LG OLED를 활용한 전시를 선보이며 예술과 기술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LG 올레드 TV는 2013년 세계 최초 OLED TV 출시 이후 13년 연속 글로벌 1위를 이어오며 매년 끊임없는 기술 진화를 통해 가장 앞선 OLED TV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2026년형 LG 올레드 에보AI는 역대 가장 뛰어난 밝기와 컬러를 구현하는 '3세대 알파 11 AI 프로세서'와 화질 손실 없이 빛 반사를 해결한 '리플렉션 프리 프리미엄'의 결합으로 우수한 화질을 구현했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오성택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담당장은 "작가가 의도한 섬세한 색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왜곡 없이 구현하는 LG OLED만의 차별화된 화질 경쟁력을 통해 기술과 예술이 함께 만들어내는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동국제강그룹, 건축 인재 1기 선발

동국제강그룹이 미래 건축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실무형 펠로우십을 본격 운영한다.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해외 건축 탐방과 전문가 교류 기회를 제공하며 건축 인재 지원을 확대한다. 장세욱 동국제강그룹 부회장(가운데)이 '럭스틸리에'로 임명된 송원 미래건축인재 펠로우십 1기 선발 인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손 모양으로 럭스틸리에의 첫글자 'L'을 표현했다. /동국제강



한화 건설부문, 장비관리자 안전교육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9일 충북 음성문화예술회관과 동건티엔엘 제2공장에서 현장 장비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설용 리프트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 직원들이 '장비관리자 전문화 교육'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삼성, 비수도권 청년 실무교육 지원

'청년희망배움터' 출범

삼성이 비수도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 '청년희망배움터'를 시작한다.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삼성은 삼성화재 대전 유성연수원에서 '청년희망배움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희망배움터의 본격적인 교육은 오는 8월 3일부터 충청·호남·경북·경남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시작된다. 청년희망배움터는 정부의 청년 직무역

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삼성의 '희망디딤돌 2.0' 운영 경험과 관계사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비수도권 미취업 청년들이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호남, 경북, 경남 등 각 지역의 교육생들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총 550명의 교육생이 교육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 했다.

삼성전자 DS사회공헌단장 여명구 부사장은 "삼성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 차세대 과학자 육성

박사후연구원 8명 선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학계를 떠나는 젊은 과학자들을 붙잡기 위해 팔을 걷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CMK 과학기술 펠로우(박사후연구원)' 프로그램 첫 수혜자 8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CMK 과학기술 펠로우'는 미래세대가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통합 인재 육성 플랫폼 '현대차 정몽구스칼라십'의 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지구적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재단은 최종 선발된 8명의 펠로우에게 국내 연구 과정 연간 2000만원, 해외 연구 과정 연간 7000만원의 연구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펠로우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분기별 학술교류, 멘

토링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지원의 배경에는 이공계 생애주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재단의 의지가 있다. 답테크(인공지능, 바이오 등) 경쟁이 심화되며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연구력이 가장 왕성한 펠로우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재원 부족으로 학계를 떠나는 '학문적 데스밸리'에 직면해 있다.

이에 재단은 기존 '스칼라십' 장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CMK 과학기술 펠로우'를 선발해 학부부터 박사후연구원까지 이공계 인재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완성했다.

이는 "인재 발굴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정몽구 명예회장의 철학에 뿌리를 둔 것으로, 재단은 앞으로도 차세대 연구자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KB국민은행, 청소년 멘토링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청소년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인 'KB라스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KB라스쿨은 KB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맞춤형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인 'KB라스쿨' 발대식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애경산업, 노사 합동 '안전 경영' 선포

애경산업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고도화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충남 소재 애경산업 청양공장에서 노사 합동 안전점검 행사 '세이프티 투게더'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애경산업은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안전점검 행사 '세이프티 투게더' 현장에 커피차가 설치됐다. /애경산업



동아제약, '박카스' 63주년 한정판 선보

동아제약은 오는 8월 피로회복제 박카스 출시 63주년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963년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박카스는 국내 대표 드링크제다. 지난해 기준, 누적 판매량은 242억에 달하며 피로회복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사진은 박카스 출시 63주년 기념 한정판. /동아제약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배성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김희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최효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김석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최규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종표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조현익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국회세종 의사당추진단장 이선주 △법제실장 조문상 ◇이사관 승진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세현 △국회사무처 김월래 △국회사무처 김태규 △의정연수원장 이동훈 △국회사무처 최철민 △국회사무처 황선호

◆국회예산정책처 ◇관리관 승진 △예산 분석실장 임명현 △추계세제분석실장 한석현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정석배 (이상 7월31일자)

◆국회도서관 ◇관리관 전보 △법률정보실장 박철호 ◇부이사관 전보 △정보봉사국장 정은희(이상 7월31일자)

◆국회기록원 ◇이사관 승진 △기록서비스국장 정정화(이상 7월31일자)

부음

▲조석영 씨 별세(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성과리더·향년 55세), 김희준 씨 남편상, 조제형씨 부친상 = 2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8월 1일 오전 6시, 장지 파주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02-2258-5940

오늘의 날씨

7월 31일 (금)
음력 : 6월 18일

수도권 날씨
26 ~ 3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35 | 해질 / 19:42

백령도 24/30, 파주 24/34, 서울 26/34, 인천 26/31, 수원 26/33, 평택 25/35, 연천 25/32, 동두천 25/32, 가평 24/33, 양평 25/33, 용인 26/3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빛 지우는 정책 성공할까



이 정 희 의

西村브리핑

“빛은 임금님도 책임 못 진다”는 속담이 있다. 한번 불어난 빛은 누구도 대신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빛은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는 수단이지만 소득 감소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겹치면 쉽게 족쇄가 된다. 원금을 갚으려 또 빚을 내고, 이자를 막으려 고금리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민 채무 정책이 등
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문재인 정부의 '장
기소액연체자 지원',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
기금과 신용사면',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
금'까지 명분은 '서민의 재기와 경제활동 복
귀'였다. 정책도 연체기록 삭제와 이자 조정
에서 원금 감면, 장기연체채권 소각으로 확
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값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해줘야 정상 경제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회수 불가능한 장기채권을 계속 추심하는 것이 채무자뿐 아니라 금융 기관과 경제에도 손해라는 논리다.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

채된 원금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추정 대상은 113만4000명, 채권 명목금액은 16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이를 모두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은 아니다.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상환능력이 없으면 전액 소각하고, 여력이 있으면 일부 감면 뒤 분할 상환한다.

서민 채무 정책은 선의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말 연체기록이 삭제된 292만8000명 가운데 2026년 1분기 48만 3000명, 16.5%가 다시 연체했다. 다만 이들은 원금을 담감받은 사람이 아니라 연체금을 모두 갚은 뒤 기록 삭제를 받은 차주다. 재연체율이 높다고 정책을 실패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재연체를 16.5%를 가볍게 볼 수도 없다. 연체기록을 일괄 삭제하면 일시적 충격으로 연체한 사람과 반복적으로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그 비용은 성실 상환자의 금리와 금융회사의 총 당금,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면이 반복 되면 '버티면 또 구제받는다'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신용점수를 회복시킨다고 소득과 매출이 자동으로 늘지는 않는다. 생활비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매우던 사람이 다시 대출받게 되면 금융 복구가 재기의 통로가 아니라 부채

재충전이 될 수 있다. 신용사면을 고용·복지·주거 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소상공인 경영 개선과 묶어야 한다.

해법은 당감과 추심의 양자 택일이 아니다. 신용사면 뒤 '재기 관찰기간'을 두고 소득 흐름과 공공요금 납부, 임대료와 매출 회복 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초기 대출한도와 금리는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성실 상환 실적이 쌓이면 조건을 개선하는 '신용 복원 사다리'도 필요하다.

반복 수혜에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질병·실직·폐업·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와 과도한 차입·상습 연체를 구분해 전자에는 재조정 기회를 주되 후자에는 감면율을 낮추거나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물어 부실률이 높은 회사에는 기금 분담률을 높이고, 무리한 대출이 확인되면 채권 매입가격을 낮춰야 한다.

모든 신용사변과 채무감면 정책에는 성과
표가 붙어야 한다. 지원 인원과 탕감액뿐 이
니라 1년·3년 뒤 자연채율, 취업률, 사업 유
지율, 소득 증가율을 공개해 효과를 검증해
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없앴는
냐가 아니라 다시 빛의 굴레로 돌아가지 않게
했느냐다.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 탕감도 냉
혹한 추심도 아닌 '조건 있는 재기'다.

/ljin@metroseoul.co.kr

민주당의 다음 총선 공천권은 누구에게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 대회가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새 여당 대표를 이재명 정부 2~4년 차 시기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정부 중·후반기에 실시되는 23대 총선 공천권을 쥐는. 선거 구도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맞붙는 '명청대전'로 짜여졌다. 이에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현역 의원의 차기 공천 유불리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공전권의 중요성은 단순히 국회의원 '법줄'에 그치지 않는다. 23대 총선이 끝난 후 바로 22대 대선의 열기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 총선에서 안정적 승리를 거두면 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다. 수도권 등에서 전세가 뒤집혀 의석수가 쪼그라들면 정권 재창출의 희망이 꺾인다. 당 대표 임기를 넘어 향후 수년간의 한국 정치의 행방을 좌우하는 중요 국면이다.

그렇기에 당 대표 후보들은 ‘1인1표제’와 ‘선호투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선거에서 사활을 걸고 승리 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의 안정적 뒷받침을 강조하며 정청태 후보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 후보는 자신의 지지층 관리당원을 최대한 결집시켜 과반 혹은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아야 당대표 연임에 가까워진다.

이미 지난 전대에서 명필(이재명의 선택) 당 대표 후보였던 박찬대 후보를 권리당원의 압도적 투표로 따돌렸고 이번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가 모두 본선에 진출하는 등 결집력은 확인됐다. 관건은 정 후보의

충청, 호남, 수도권에서 타 후보와 격차를 벌리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정 후보와 친청계를 '반명'으로 프레임을 씌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띄우고 지지층이 이를 친청계와 연계 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친청계의 결집을 확인한 김 후보는 중도층 당원을 포섭해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도 지지층이 상당수 결집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선호투표제 하에서도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한편, 전당대회가 끝나도 새 지도부가 맞이할 현실도 녹록치 않다. 지선에서 2030 세대 민심 이반은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자본시장 정책의 신뢰성은 흔들리고, 야당은 대통령 공소취소·연임 개헌을 우려하며 결집하고 있다. 위기에서 경쟁은 더 치열하다. 과연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건 누구일까.

/pth7285@

김상회의 四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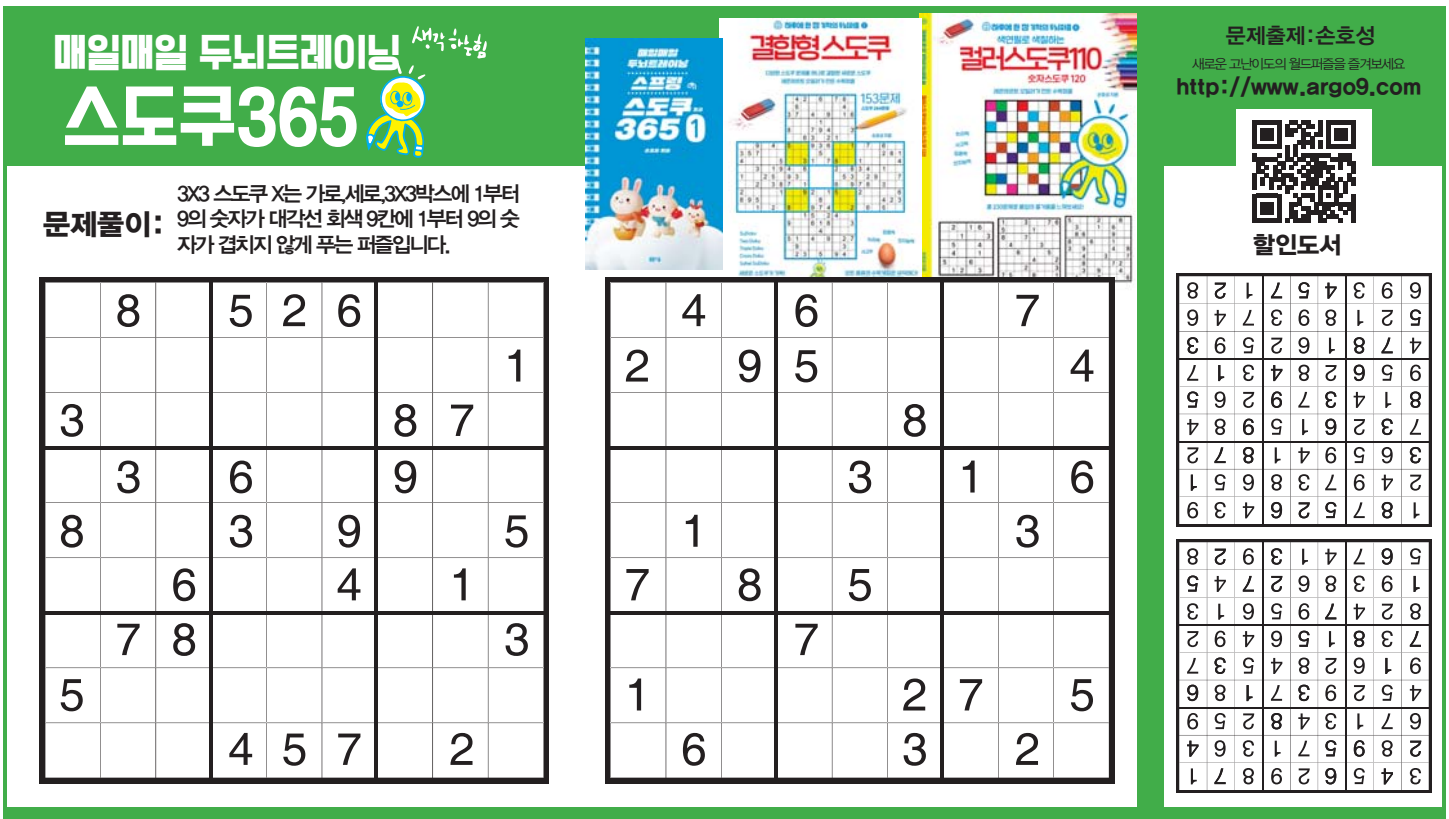
관우 신앙

관우신앙은 관제신앙(關帝信仰)으로 승격하여 부르기에도 한다. 신앙이 탄생한 배경에는 원나라 때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관우가 더할 나위 없는 지덕과 무용을 겸비한 것으로 비치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폭발한 소설 삼국지연의의 역할을 부인할 수가 없다. 물론 당나라 때도 도교가 유행하자 관우가 신격화된 것이며, 외침이 잦았던 송나라 때에는 국가 차원의 호국신으로서 나라를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심겨 있었지만, 삼국지연의 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중국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성품을 지닌 영웅의 모습은 향구한 것으로 고정되었고, 명나라에 들어서서는 산시성 진상(晉商)들에 의해 급기야는 재신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 임진왜란을 겪으며 관제신앙을 처음 접했는데, 당시 조선에 출병한 명나라 군인들이 주둔지에 관우 사당을 짓고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전반 강진과 남편, 결복의 성주와 안동은 물론 서울 최초의 관우 사당인 남묘에도 이 시기에 관우 사당이 건립되었으며, 명나라 황제(신종)가 금4천냥을 하사해 건립한 것이 지금의 동묘라 한다. 동묘에 가보면 금동관우상이 있는데 높이가 2m를 훨씬 넘긴 거작이다. 조선 말기 고종과 민비가 관제신앙의 추종자였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1882년 임오군란 발발하자 성난 군중이 민씨 일가를 잡으러 다니자 민비는 궁녀 차림으로 충주로 도피했다. 그 상황에서 민비는 무당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당은 ‘곧 대궐로 복귀하실 것’이라고 점사를 낸다. 희한하게도 청나라의 개입으로 민비는 50여 일 만에 환궁한다. 민비는 감읍하였고 고종은 그 무당에게 진실로 영험하다는 의미로 진령군(眞靈君)이라는 작호를 내렸다. 그런데 그 진령군이라는 무녀는 자신이 관우의 딸이라 하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유통업계
외국인 소비가
실적 갈랐다
L1



Life

한국가스공사
홍익락 사장 취임
“에너지 미래 연결”
L2



오크통에 담긴 예산 사과술... K-드링크의 세계화 꿈꾸다

Q 르포

예산사과와인 양조장

서양 증류주 기법에 특산물 접목
사과 와인·브랜드로 세계 무대 조준
외국 인플루언서, 한국술에 관심

여름의 정점, 충남 예산의 한 양조장·증류소에 외국인 인플루언서 무리 대어섯이 보였다. 번역기 귀에 쏙쏙 한국 사람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들은 때로 까르륵 웃고 고개도 자주 끄덕였다. 청중의 반응대로, 마이크 잡은 정제민 예산사과와인 사장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양조장 내 행사장 입구에는 출시된 제품과 그간 받은 상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십수 년 전 영국 애버딘을 찾았을 때가 생각났다. 익숙치 않은 스코틀랜드인 발음과 마주했고 현장에 통역사도 없던 터라 자의적 해독에 의존해야 했다. 스카치위스키, 싱글몰트 등의 엄격한 기준을 강조해 말하는 것으로 들렸는데, 지금의 기억으로 그 현지인의 입가와 논매에 묻어난 자신감만이 남아 있다. 삼태인을 강요하던 프랑스 상파뉴 지방의 주류 해설가, 제주 하는



충남 예산 농업사회법인 예산사과와인의 정제민 사장이 사과브랜드의 숙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쌀로 만든 막걸리 소개하던 성읍의 음식점 주인장도 모두 같은 선상에 있었다.

예산사과와인은 위치가 좀 다르다. 고유의 소줏고리 방식이 아닌, 껍질 등의 서양 증류주 만드는 기법에 지역 특산품을 접목한 사례다. 정제민 사장은 오크통이 쏘아붙여 쏘인 곳으로 안내했다. 사과와인을 증류해 숙성 중인 사과브랜드를 추출해 권했다. 프랑스 칼바도스와 견줘, 맛에 손색이 거의 없었다. 2년쯤 전 지인이 노르망디 몽생미셸 수도원 다녀오는 길에 사 왔으며 건넌 칼바도스, 사과 브랜드, 이른바 '사과 코냑'이다.

포도 재배에 기후가 안 맞아 사과로 술을 빚는다는 노르망디 지역. 포도 증류한 실제 껍질과 달리, 깨끗한 냄새 없애는 게 관건이고 기술이라는 사과브랜드. 그 기법 따온 한국의 정 사장. 그의 술엔 예산 사과만의 풍미가 담겨 있었다. 이제 프랑스 서북부와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K-드링크의 해외 진출, 나아가 세계화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동서양 식문화의 결합, 유연한 사고가 어찌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산지역 내 각기 다른 품종의 사과를 골고루 주문해 쓰는 만큼,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예산사과와인 양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그만이다. 이곳 양조장을 방문한 남미와 유럽, 중앙·남아시아태생의 인플루언서들. 오크통에서 뽑은 감칠맛에 한결같이 만족하는 표정을 내보냈다. 이들은 예산사과브랜드에 더해 다른 한국 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은 7월29일, 사실 전국 각지의 전통술 장인들이 예산사과와인 양조장에 한데 모여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돼, 자신들의 상표를 국내외에 알리는 행사 자리였다. 콜롬비아에서 온 다니엘라 폰세카(26) 씨는 "한국 술이 이렇게 다양한 원료

와 맛을 지녔는지 미처 몰랐다"며 "앞으로 한국 술 홍보인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조장 내리쬐는 햇살이 따가운 정오 무렵이었다. 정 사장의 아내분은 70여명 참석자 모두에게 결집임(페어링) 식사·안주를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독일식 돼지고기, 감자, 파스타에 사과브랜드가 꽤 잘 어울렸다. 해외 객지살이 경험이 있는 정 사장. 손님들과 소통이 가능한 건 덤이다. 연중 이곳을 찾는 방문객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라고 했다. /예산(충남)=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영화관으로 피서하자”... 오감만족 재미 풍성

스파이더맨·오디세이 등 대작 개봉
특별관 몰입감에 여름 이벤트까지
굿즈, 체험형 공연 등 즐길거리 가득

여름 휴가철과 본격적인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다채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극장가가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기술 특별관의 압도적인 몰입감부터 이색 디지털, 소장 가치 높은 굿즈, 그리고 공간을 허문 이머시브 공연까지 관람객의 오감을 사로잡을 풍성한 즐거움이 가득하다.

◆ 블록버스터부터 특별관까지

8월 극장가는 폭염을 날려버릴 스펙터클한 기대작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먼저, '스파이더맨: 브랜즈 뉴 데이'는 할리우드 최초 'Shot for SCREENX' 적용 작품으로 3면 스크린과 4DX 효과를 통해 뉴욕 상공을 가로지르는 짜릿한 속도감을 선사한다.

영화사 최초 전면 IMAX 70mm 필름 카메라로 촬영해 웅장한 자연과 전투 스케일을 극대화한 '오디세이'도 만날 수 있다. 오

디세우스가 10년에 걸쳐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

'오케이 마담'은 초호화 크루즈를 배경으로 시원한 해양 액션과 유쾌한 코미디를 결합해 SCREENX와 4DX 등 다양한 특별관 포맷으로 관객을 찾는다.

이밖에도 '호프', '사랑의 하수관: 고래 보석의 전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관객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

CGV와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사별 프로모션 포함)는 관람객들을 위한 실속 있는 혜택과 이벤트를 이어간다. CGV는 오는 8월 23일까지 대화차 관람 고객을 대상으로 다이스 쿨 타워형 선풍기, 영화관람권, 매점 쿠폰 등을 증정하는 대규모 썸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CREENX 등 기술 특별관 관람객을 위한 전용 이벤트도 함께 마련돼 시원한 극장 피서의 재미를 더한다.

◆ 시즌 디지털과 '소장 욕구' 굿즈

극장은 이제 영화만 보는 공간을 넘어 트렌디한 미식과 쇼핑을 즐기는 '핫플레이스'로 진화했다. 롯데시네마는 무더위를 식혀줄 수박주스, 망고·사인머스켓 사

베트, 밀크컵빙수 등 시즌 디저트를 비롯해 멕시코나치킨과 손잡은 닭강정 등을 선보이며 '극강스(극장+바캉스)'의 맛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2030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굿즈 라인업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품질 대란을 일으켰던 '킵킵 키링' 시리즈의 2차 판매를 비롯해 '극장관 도라에몽', '미니언즈 & 몬스터즈', '스파이더맨: 브랜즈 뉴 데이' 등 인기 캐릭터 IP를 활용한 파우치, 장패드, 파규어 등이 일상 속 덕질 트렌드를 극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 무한 변신...독창적인 체험도 선사
상영관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시도도 눈에 띈다. 롯데컬처웍스의 몰입·체험형 공연 브랜드 '인사이드 더 플레이'는 대형 스크린과 음향, 로비 등 영화관 인프라를 활용해 관객이 직접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독창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올 여름,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극장에서 시원하고 특별한 휴가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신원선 기자 tree6834@

격동의 시기 거친 서울의 도시·건축 기록

파괴와 성장이 교차하는 '모순의 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건축을 다각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김성홍 명예교수가 세계적인 건축·도시 전문 출판사 'Park Books'에서 펴낸 'Seoul Urban Architecture: Rising from the Crushing Bowl(서울 도시 건축: 절구통에서 튀어 오르다)', 교육자이자 건축가의 시선에서 본 40여 년 서울의 모습을 담은 회고록이자, 모순을 파고든 문화사이며, 도시 문제를 짚는 비평서다.

이 책은 서울을 통해 한국 현대건축의 흐름을 꿰뚫어 본다. 유교적 질서 위에 세워진 수도 서울은 격동의 시기를 거쳐 거대하고 수직적인 도시로 급성장했다. 서울이 거대도시로 성장하는 동안 그 이면에는 파괴와 아픈 역사가 반복적으로 쌓여왔다.

책은 총 4부로 구성했다. 'Surveying the Landscape'는 수도 서울의 탄생부터 식민지 근대화,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지리적·역사적 격변을 겪은 서울의 역사를 추적한다. 2부 'Realities of Urban Planning'은 비약적 성장이 불러온 도시의



Seoul Urban Architecture
(서울 도시 건축: 절구통에서 튀어오르다)
김성홍 지음 / 파크북스

현실을 보여준다. 3부 'Searching for an Architectural Identity'는 한국 고유의 건축적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시도를 조명한다. 마지막 'Rising from the Crushing Bowl'은 '모순의 도시' 서울의 가치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책의 학술적 의미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의 근현대사가 각국의 도시와 건축 문화에 끼친 영향을 비교·분석한 최초의 영문 단행본이라는 점에서, 한국 도시·건축 관련 영문서가 여전히 드문 상황에서 국내외 건축가, 도시계획가들이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메트로 한줄뉴스



▲일본 구마모토 규모 7.1 강진 피해... 사망자 28명으로 늘어 /사진 뉴시스
▲트럼프, 사우디 국방장관 긴급 회동...이란 대응 조율

▲BMW, 독일서 8000명 감원 착수...中 판매 부진 등 배경
▲마라톤 2시간 벽 넘은 사웨, 12월 한국 방문...동호인과 함께 달린다

▲FIFA, '정치적 현수막·난투극' 아르헨티나 징계 절차 밟는다
▲이정후, 2경기 만에 멀티히트에 3타점 '펄펄'...밀워키전 16-3 대승 기여